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육식을 해도 되는 이유

(Why It's OK to Eat Meat)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이서영

2024년 2월



육식을 해도 되는 이유 (Why It's OK to Eat Meat)

지도교수 김재원

이서영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이서영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진보



위원

김재원



위원

박문영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3년 12월



육식을 해도 되는 이유

1. (Why It's OK to Eat Meat)

댄 C. 샤후르 (Dan C. Shahr)

루틀리지 (Routledge)

목 차

1장 육식을 해도 되는가? ----- 04-18

1. 좋은 주장 찾기
2. 육식은 즐기는 행위인가?
3. 건강에 이로운가?
4. 자연스러운가?
5. 신이 허락한 것인가?
6. 동전의 이면
7. 책에 대한 계획

2장 의식 있게 고기 먹기 ----- 19-43

1. 공통된 특성들
2. 존중의 정체는?
3. 설명의 필요성
4. 차별의 대가
5. 동료를 잡아먹는다는 것
6. 조기 도축
7. 양심적인 잡식주의자의 가능성

3장 99%의 다른 것 ----- 44-67

1. 닭고기
2. 돼지고기
3. 소고기
4.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5. 업계의 기준
6. 독립된 자격
7. 현실이 문제다

4장 차이를 만들다 ----- 68-90

1. 인간이 육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 어떻게 효과가 없을 수 있을까?
3. 공급망으로 의견 전달
4. 변화를 위한 대응
5. 활동에 참여하기
6. 왜 선택해야 하는가?
7. 좋은 가성비
8. 잘못된 논증 전략

5장 모두가 육식을 했다면 어땠을까? ----- 91-108

1. 보편화 시험
2. 육식주의자들로 가득한 세상
3. 채식주의자들로 가득한 세상
4. 이상적인 결과 vs 전략적 결정
5. 사슴 사냥
6. 기여도 높이기
7. 흐름의 전환
8. 선제권 가지기

6장 육식의 정체성 ----- 109-128

1. 태도를 보이는 것
2. 지지받는 소비 행위
3. 결탁의 퍼즐
4.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5.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것
6. 함께하는 게 더 나은가?
7. 육식은 해도 된다

1장 육식을 해도 되는가?

수백 년 전이라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대부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먹고 있을 거라’ 대답할 것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까다롭지 않았다. 물론, 까다로울 수도 없었다. 먹거리라고 해봐야 매우 제한적이었고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선진국 국민이라면 대개는 (예를 들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음식의 맛이 어떤지, 얼마나 건강에 이로운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음식 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등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쓴다. 과거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고 요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선택의 자유를 통해 우리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이 건강에 해롭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식품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대로 된 대우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우리가 먹는 가축 또한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사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식품산업 전반에 매우 만연해 있고 특히 육류산업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게다가 근래에는 동물복지 문제마저도 자연스럽게 육류산업의 문제로 넘어오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육류산업의 실태를 보면 근로자 홀대, 근무환경의 질 저하, 공중보건의 위기 등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건강을 지키고 절약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육식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확신도 커졌다. 요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칭 “윤리적 채식주의자”라고 주장한다. 최근 수십 년간 채식 운동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우리 부모, 조부모가 자랐던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

나는 육식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육식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채식주의자들이 틀렸다고 주장할 것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생산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면서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고기가 음식점, 슈퍼마켓 그리고 우리의 식탁 위에 오는 과정이 비난받을 만하더라도 말이다.

그렇다고 육식을 하면 앞에 언급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건 아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삶을 되돌아볼 기회들이 많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지 않는가?) 또한 육식을 삼가는 행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육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는 뒷장에서 하겠지만 고기를 먹는 행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단지 육식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윤리적 삶도 같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 뿐이다. 마치 집을 사거나, 소매점을 운영하고 날씨가 추울 때 스웨터를 입는 등 일상적인 행동처럼.

시작하기 전에 용어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다. 육식에 대한 윤리적 동기가 있는 채식주의자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작은 차이점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는 일반적으로 달걀과 유제품을 먹지만 완전한 채식주의자인 “비건”은 아니다. “오스트로비건”은 굴과 홍합과 같은 조개류의 신경계가 너무 단순하므로 의식이 없다는 전제가 있기에 먹을 수 있다고 본다. “프리건”은 동물성 식품을 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은 먹는다.

이들은 이렇게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그냥” 육식을 해선 안 된다는 공통된 믿음이 있다. “그냥” 하는 육식은 생산 방식을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것을 말한다. ‘그냥’ 육식하는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고기가 들어간 메뉴 이름이 맛있게 느낀다면 망설이지 않고 주문한다. 또한 양심적인 생산자가 제공한 “질 좋은” 고기와 냉장고의 한 칸을 대부분 차지하는 일반적인 고기도 마트에서

손쉽게 사서 요리를 한다.

나는 “그냥” 하는 육식도 괜찮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반육식주의 시각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 없다. 그냥 간단하게 “채식주의자”라고 부르겠다. 다음 장에서 나는 모든 채식주의자가 윤리적인 이유로 육식을 하지 않는 건 실수라고 말하고자 한다.

1. 좋은 주장 찾기

이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내 의견이 오랫동안 우세한 듯 보일지도 모른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실질적으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계속 육식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육류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실험적으로 채식을 시도한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 다시 고기를 먹고 있고 채식을 한 기간도 몇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도주의 연구협의회(Humane Research Council)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인의 12.1%가 한때 채식주의자였으며 (비건 포함), 1.9%만 현재 채식을 실천하고 있고 10.2%는 일찍이 채식을 그만뒀다고 했으니 다시 육식하는 사람은 전체 84% 정도 된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육식의 윤리적 이점과 관련이 없다면서 해명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 대부분은 너무 가난해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들 중 일부는 육식을 반대해야 하는 윤리적 이유조차 모른다. 다른 이들은 육식을 반대하는 주장이 익숙하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은 어리석고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들이 육식은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고 확신한다. 일부 사람들은 육식이 옳은 행위는 아니란 걸 알지만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대부분이 고기를 먹지만 그렇다고 육식주의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육식을 해도 되는 몇 가지 공통된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은 육식주의자들은 맛 때문에, 혹은 건강을 위해 고기를 먹는

다면서 육식을 정당화한다. 어떤 이들은 육식이 “자연스러움”이라고 강조하고, 다른 이들은 종교 문헌에 나오는 권위적인 지침을 보여주면서 육식이 정당하다고 한다. 좋은 나쁜든, 모든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제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2. 육식은 즐기는 행위인가?

고기의 맛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육식주의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고기의 맛 때문에 즐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리적 수용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말이 전혀 쓸모가 없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도덕성으로 인해 즐길 수 있는 행동들이 주로 비난받고 있다는 걸 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서 기분이 좋더라도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게 좋지만, 그들을 부려 먹었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는 즐거움이 윤리적 허용성과 항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고기의 맛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윤리적으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육식이 단지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의견도 있다. 고기의 독특한 풍미와 식감은 음식 중 일품이라서 고기가 없다면 삶이 고되고 재미가 없을 거라고 한다. 육식을 포기해서 진실한 행복의 기회가 사라졌다면, 고기의 맛이 좋아서라는 단순한 의견보다 더 강력한 예시가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답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채식주의자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건 그냥 거짓말처럼 보인다. 많은 식물성 음식들은 맛이 좋고 세계 전통 요리들은 고기 없는 요리들을 경험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실제로 똑똑한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보다 식단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믿으면, 그들은 식사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실제로 보고된 웰빙에 대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라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웰빙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행복을 위해 육식이 필요한 거였다면, “그냥”하는 육식을 정당화할 수 없었을 거라는 점이다. 고기를 먹는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

을 거의 끼치지 못한다. 볶음요리 집에서 두부 대신 돼지고기를 시켰다고 이 선택이 내 삶 전체의 질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집에서 부리토를 만들 때 치킨을 넣든 콩을 넣든 내 행복과는 관계없다. 특히나 인간으로서 고기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고기 요리가 역겹다고 생각하면 식단에서 고기를 없애더라도 확실히 행복할 수 있다고 본다. 기껏 해봐야 고기가 중요한 요리라서 특별한 장소에서 먹을 때나 정당화될 수 있을 뿐 당연해 보이는 건 없다.

육식주의자들이 채식주의자가 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건 의미가 있다. 추수감사절(미국)이나 가족들이 준비한 특별한 식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는 고기 없는 식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음식들을 포기해야 하는 점은 너무나도 큰 요구 사항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고기를 포기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위와 같은 불확실한 전제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논의로 ‘그냥’ 하는 육식을 지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건강에 이로운가?

또 다른 공통된 주장은 육식이 건강에 필수라는 점이다. 고기는 단백질과 미량 원소인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12를 제공하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다. 사실 비타민 B12는 다른 영양소 중에서도 혈소판과 DNA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동물성 식품 말고는 다른 일반 식품에서 찾을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일부는 육식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반박하지 않지만, 이 주장은 앞에 말한 두 가지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첫째, 이 주장의 주된 내용은 거짓을 보여준다.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고기와 다른 동물성 식품을 피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채식주의자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얻으려면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영양소를 얻을 방법은 이미 보편화되어있다. 비타민 B12조차 특정 해조류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영양제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고 식사 원칙까지 쉽게 지킬 수 있다.

둘째,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고기가 필요했는지라도, 대부분 실질적인 육식을 확실하게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특히나 선진국에서 육식주의자들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하는 양보다 더 많은 고기를 먹는다. 사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는 심장병과 비만과 같은 주요 공공 보건 문제들로 이어진다. 전형적인 육식주의자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주장하는 건, 그들이 고기를 적게 구매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냥” 육식을 옹호하기 위해선 다른 주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최근에 유행하는 방식에 주목해보자. 육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는 이유를 행복과 건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육식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기에 어쨌든 육식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똑같은 두 가지 장애물을 맞닥뜨린다. 그와 반대로 고기의 어떤 중요한 점을 내세우면서 필요하다라는 건 그냥 봐도 딱 거짓처럼 보인다. 채식주의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러한 식사 방법이 인류의 복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육식이 정말 필요하더라도 “그냥” 육식하는 행위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가 정말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하는 육식 중 어느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도 나는 고기를 먹어야 해!”와 같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나온다고 놀랄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대개는 거짓말도 하기 때문이다. 육식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육식이 필요성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의심 가는 윤리적 행위라면, 채식주의자와의 대결에서는 이미 패배했다.

4. 자연스러운가?

일부 육식을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육식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건 피한다. 왜냐하면 애초에 육식이 반대할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더 가능성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주장은 보통 설득력이 없다.

육식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서 해도 된다는 주장을 예로 보자.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하나의 생물 종으로 역사를 통틀어 육식을 해왔다는 주장이 있다.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간을 살펴보면 우리의 송곳니가 육식에 특히 적합해 보인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육식은 인간 특유의 행동이 아니고, 인간이 진화하기 오래전부터 영장류가 해온 행위이며 심지어 다른 많은 동물도 고기를 먹는다. 육식은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의 정상적인 특징일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기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육식은 철저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간과 더불어 더 넓은 범위의 생태계에서도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우리는 단지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육식을 멈추면 생태계 붕괴와 종의 멸망 또는 환경적 재앙이 불러일으킨다는 말은 아니다 (이게 사실이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생태계 기능이 인간이 육식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대부분의 육류를 생산하는 농업 관행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내가 염두하고 있는 주장은 더 근본적인 것이다. 육식이라는 이토록 자연스러운 행위에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한가지 문제는 많은 ‘자연스러운’ 행위를 피하고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권력이나 자원을 놓고 다툰 때 서로 싸우고 죽이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오랫동안 이런 행위를 해왔고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윤리적 회의감을 가진 이들은 역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절도, 노예제도, 살인 등을 포함하여 여기서 살아남은 강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윤리적 정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오히려 도덕성은 공평성과 정당성을 이루기 위해 “자연스러운” 행위의 방향을 바꾸는 체계이다.

설상가상으로, 육식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자연스러운” 행위처럼 보인다. 절도나 노예제도, 살인처럼 육식은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명제 아래 힘없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우는 듯 보인다 (대부분은 동물들에게 해당하지만, 육류 생산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도덕성이 우리

에게 “자연”에 대해 알려 준다면, 이러한 특징이 있는 행동들은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

그래서 육식의 “자연스러움”을 옹호하는 건 설득력 없는 변호만 늘어놓게 만든다. 육식을 해도 된다고 증명하기는커녕, 사실상 채식주의자들이 육식과 다른 악명 높은 부도덕성 간에 유사점을 이용하여 육식을 비난한다. 육식의 “자연스러움”은 육식이 흔하게 행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마치 절도, 노예제도, 살인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육식을 대변하기 위한 윤리적 주장은 되진 못한다.

5. 신이 허락한 것인가?

육식을 옹호하는 글은 성경과 같은 종교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 글을 윤리적인 지침으로 여길뿐더러, 실제로 육식을 분명히 지지하는 듯한 여러 구절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신이 노아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이러한 구절은 채식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육식을 지지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책은 종교에 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내용은 종교적 주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완전히 종교라는 주제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은 성서가 육식을 지지했다고 해서 현재 행해지는 육식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이 책이 육식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육식에 대해 성경이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종교 문헌 그 자체에서도 육식의 타당성이 하나의 관점으로만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육식할 권리를 줬다 해도 그 당시 신이 만든 기준에서는 벗어난다. 신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다른 동물들을 지배할 권리를 줬지만 육식할 권리는 주지 않았다 (신이 말하길, “보아라, 나는 이 땅에 있는 씨앗을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것이 되리라 하시니

라.”). 노아에게 한 지시는 그러한 규칙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담에게 했던 최초의 지시를 다시 보면,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식물을 줬듯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즈음에,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지침을 한 번 더 바꾼 것처럼 보인다. 노아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레위기에서는 낙타, 너구리, 토끼, 돼지를 포함한 많은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금지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완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말을 볼 수 있다. 이사야는 인간이 아닌 포식자들도 살기를 띠지 말고, “소를 잡는 사람도 살인하는 자와 같다...” 라고 예언했다.

이러한 성경의 지침과 어조의 반복적인 변화로 인해 육식을 정당화하는 구절 하나하나를 지지하기는 어렵다. 성서의 윤리적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육식의 지지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다. 단지 성경에서 옹호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해서 육식이라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하는 육식은 괜찮았지만, 오늘날에는 피해야 할 필요성이 항상 존재한다.

성경은 우리가 현재 명백하게 용납할 수 없는 다른 관행들을 지지하면서 더욱 우려를 높였다. 예를 들면, 여러 성경 구절에서는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심지어 노예를 얻고 관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볼 수 있다. 출애굽기에서 규칙에 관해 기술한 놀라운 구절이 있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려서 종이 죽으면 주인은 처벌받는다.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아남는다면 주인에 대한 처벌은 없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또한 현재 우리가 극단적인 보복을 하려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광범위한 범죄나(예를 들어, 부모를 욕하거나 간음하는 행위) 보복에 대한 부적절한 이유(예를 들어, 동성 간의 성관계)에는 사형을 명했다.

이러한 성경의 요소들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만든다. 신자들은 의심도 하지 않고 이런 규칙과 관행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의 윤리적 권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퍼즐을 풀기 위해 수많은 전략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문구가 잘못된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때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고 문맥 외부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다른 이들은 성서를 항상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특정 구절을 적절하게 이해하려면 미묘한 비유와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화를 이루려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앞에 나온 모든 주장은 다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서는 부당한 행동을 명백히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려면 양심적인 신자들이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나간다면, 육식을 옹호하려고 성경을 지지하는 건 확실히 어려워 보인다. 알다시피, 노예를 소유하는 일이나 부모를 욕보인 자들을 처단하는 일 등에 대해선 성경에서도 명백히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삼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해나가든, 채식주의자들은 육식 문제에서만큼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호의적인 관점으로 육식을 특정한 맥락, 우화 또는 더 넓은 성경적 가치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다른 윤리적 의구심이 드는 행위는 해명하지 않고, 채식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육식을 정당화하는 성경 구절은 지적하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윤리적 목적에서 중요한 점은 특정한 행동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와 믿음의 깊이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어떤 것이든 마음과 배로 들어가서 하수관으로 나온다고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럽혀진다. 안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온다.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예수의 첫 편지에 바울이 이와 같은 생각을 덧붙이고 전했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든, 모두 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를 통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육식이 본질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일반적인 시각에서 윤리적 올바름과 함께하는지다.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의 특성보다는 고기 자체에 집중하는 오류를 범한다면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확실히 믿는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건설적이지도 않다.”

이 중 어느 것도 성경이 채식주의를 굴복시킬 예시를 말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요점은 간단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성경 문구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 차이에 결정적인 해결책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순히 책을 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신의 계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맥락에서는 대립하는 관점의 장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일하다고 본다.

6. 동전의 이면

우리는 육식을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들을 살펴왔다. 그들은 기껏해야 풀지 못하는 질문들을 남겨놓았고 최악의 상황에는 연막작전에 지나지 않는 것들만 보여줬다. 육식주의자가 채식주의자의 비판에 맞서 자신들의 선택을 옹호하고자 한다면 기존과는 다르고 더 나은 주장이 필요하다.

육식주의자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나는 채식주의자들도 나쁜 주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빠르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의 예를 언급하자면, 앞에 나온 육류를 옹호하는 주장과 유사하게도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육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전체부터 틀렸다고 보면, 사실상 의료전문가들은 고기를 어느 정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다더라도, 여전히 육식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 많지만 걱정할 수준에서만 하면 괜찮다. 고기가 정말 건강에 해롭다면, 사탕, 술 또는 카페인 과다 섭취가 문제인 것처럼 고기를 과하게 먹는 것이 그렇게 보일 뿐이다.

육식에 대한 논쟁은 너무 형편없는 논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단 몇 문단으로도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내 목적은 형편없는 주장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목표는 궁극적으로 육식을 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양측의 강력한 주장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에 집중하는 대신 채식주의에 대한 최적의 주장을 논하고, 모든 채식주의자들이 말했더라도

결국에는 육식을 해도 된다는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하겠다.

7. 책에 대한 계획

윤리적 채식주의자들은 대놓고 육식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일은 복잡해진다. 채식주의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주로 “공장식 농장”에서는 잔인하게 동물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관행을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동물들의 윤리적 중요성은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먹는 행위는 타인 혹은 적어도 동물과 비슷한 수준의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만큼이나 경멸스럽다고 본다. 동물은 우리의 친구 같은 존재이며 더는 식량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육류 생산자들은 지독하게 직원들을 학대하고 있기에 우리는 직원들과 연대를 보이기 위해선 그 회사 제품을 보이콧을 해야 한다. 축산업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우리가 고기를 포기하면 생태발자국을 줄어든다.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방식은 새로운 전염병의 위험을 높이며 공공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위협을 완화해야 한다. 모두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세계는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육류회사의 나쁜 행실에 맞서고 산업계의 악행을 멀리하려면 고기를 삼가야 한다. 많은 문제와 연관된 제품의 소비를 즐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육류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너무 많은 게 자신들의 명분에 좋다고 여긴다. 자신들의 입장이 대부분 옳아서 잘못된 한두 가지의 주장으로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이라 보는 듯하다. 그에 반해 채식주의에 관한 많은 주장은 누군가가 이의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채식주의의 특정 주장을 공격할 때 채식주의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항상 이와 같다. “알겠어, 그런데...?” 이 책에서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주장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는 천천히 차례대로 각각의 주장들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채식주의의 두 가지 윤리적 주장인 “실천 상 잘못된 것”과 “원칙상 잘

못된 것”을 구분해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실천 상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은 요즘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육류산업들이 행하는 잔인함과 착취, 환경파괴와 위험한 관행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많은 채식주의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유일하게 행동을 끌어낸 것은 아니다. “원칙상 잘못된 것”은 생산 방식과는 상관없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육식이 다른 동물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이 부족하다고 하며 모든 동물이 인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하게 사육된다더라도 육식은 여전히 잘못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채식주의 내에서 두 가지 주장의 차이는 중요하다.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고기에 대해 채식주의자들이 우려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모든 고기를 피하려는 대신 윤리적인 측면에서 육류에 대해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일명 “양심적인 잡식주의자”라고 부르며 육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채식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실제로, 요즘 육류산업에서 생산되는 육류를 고려했을 때,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고기를 먹는 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생산자들의 신중한 관행 덕분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경우가 있다.

“양심적인 잡식주의자” 덕분에, 채식주의자들은 단순히 육류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육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양심적인 잡식주의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채식주의자와 같은 우려를 표한다. 채식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양심적이면서 육식을 못 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서 “원칙상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며, 동물들이 흠잡을 데 없이 사육된다더라도 잡아먹는 행위는 여전히 부도덕하다고 보이게 만든다.

2장에서는 ‘원칙상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서 왜 실패하는지 보고, 근본적으로 육식이 잘못되었다는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려준다. 모든 고기가 인도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하게 생산되었다면, 육식은 윤리적으로 해도 된다는 점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보여줄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육류는 비인도적이고 불공정하며 지속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어서, 윤리적

육류 생산의 가능성은 실제 육식이 정당하다고 입증할 수 없다. “그냥” 하는 육식을 정당화하려면 육류산업의 실제 관행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동물과 노동자와 환경 그리고 공공 보건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는 관행이 있다 해도 육식을 어찌서 해도 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며 이 책의 요점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육류산업의 기존 관행을 조사하고 평가하는데 적당한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닭, 돼지, 소가 어떻게 사육되고 도살되는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이러한 예시는 채식주의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를 보여주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행들을 명백하게 범죄 사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육류산업의 관행을 평가하는 최적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이해하더라도, 특히나 동물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업계가 수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3장의 분석은 육류산업이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데이비드 디그라지아(David DeGrazia)는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장형 농장은 윤리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다. 개인의 책임에는 무엇이 따라오는가? 솔직히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기에, 제도적 잘못에서 개인의 의무로 넘기려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6장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이 육류산업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육식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로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개인적 차원이나 더 넓은 채식주의 활동 수준에서 고기를 먹거나 피하는 행위가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보편화 테스트를 이용한 주장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육식주의자(혹은 채식주의자)처럼 행동하면 어떨까?’ 6장에서는 육류산업의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육류에 대해 어떻게 신념을 표현하고 행동하며 감정적으로 관여할지에 관한 주장을 논의할 것이다.

이 장에서 나오는 주제는 채식주의가 중요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선택을 제공해 주지만 이는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특별히 선택할 의

무는 없다. 나는 긴급한 문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관행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각자는 윤리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보면, 채식주의는 윤리적으로 해야 할 하나의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단순히 육식을 옹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 육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인 우리는 모두 세상이 심각한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안다. 나는 우리가 고기를 포기해서 육류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지만, 채식주의자들의 실수가 완전히 잘못된 사실에서 초래된 건 아니다. 윤리적 채식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한 문제는, 실제 윤리적 의무는 훨씬 넓은데도 이를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의무는 없어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울 의무는 있다.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2장 양심적인 잡식주의자

육식주의자를 포함해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나 식인 금지는 미묘한 형태의 식인 풍습에도 적용되는 듯하다. 내가 보육자들을 존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생태적 영향과 공중 보건 위험을 피하면서 몇몇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운다고 상상해보라. 이러한 행동 후에 아이들이 자는 동안 내가 고통 없이 아이들을 죽이고 살점을 먹는다면 나는 윤리적 괴물일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죽이는 특정한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식량으로 취급하는 부도덕성이 판단되지 않는다. 사람을 가장 정성을 다해 키운다더라도 이는 여전히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주장에서 육식의 잘못은 우리가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관행의 산물뿐만이 아니다(채식주의자들도 이에 반대하지만). 기존 관행을 인도적이고 공평하며 지속할 수 있고 안전한 대안을 가지고 행하더라도 많은 채식주의자는 여전히 육식이 부도덕하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톰 리건(Tom Regan)은 육식의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동물을 식량 이상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리건과 그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농장 운영을 철저한 바꾼다더라도 “농업이 저지르는 잘못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개인에게 해가 되는 그 이상의 잘못만 없앨 뿐이며, 관행은 덜 잘못되게 행해지겠지만 이미 만연해 있는 근본적인 부당함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육식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동물을 존중받을 존재가 아닌 잠재적 식량으로 보는 한, 리건과 같은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이 윤리적으로 계속 잘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무리

동물 학대와 근로자 홀대, 환경파괴나 공중 보건 위험을 피하려고 농업을 힘들게 변화시키더라도 마찬가지다.

육식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견해가 이 장의 주제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양심적인 잡식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더라도 실제로 육류 생산 방식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여전히 현실에서 육식을 걱정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책에서 "원칙상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는 한 장만 할애하고 육류 생산의 현실로 인해 육식은 잘못이라는 견해에는 네 장이나 할애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장에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주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계에서 보여주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이건 필수다. 가축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일이라면 실제 육류산업 문제에 얼마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윤리적으로 가장 민감한 축산업도 여전히 용납될 수 없다면 "공장식 농장" 등의 문제는 논외로 여겨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원칙적으로 육류가 양심적인 방식으로 생산된다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견해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고자 한다. 우리가 사는 실제 삶에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 말이다.

1. 공통된 특성들

"원칙상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에서 잘 알려진 주장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한다. 적어도 식량을 위해 무언가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고 죽일 수 있는지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분명한 윤리적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한다. 식인 행위가 절대적으로 잘못이라면 육식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채식주의자와 대화해봤다면, 이 주장에 대한 유형을 일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육식주의자들을 괴상하게 여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해명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듯해 보이는데, 채식주의자들에게 식인 행위는 "원칙상 잘못된 것"인 반면, 육식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간의 삶은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의 의미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성격, 정체성, 독자성을 개발할 수 있다. 서로 호환되는 관심사, 가치관, 열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동물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보답을 요구할 수 있다. 인간은 행동을 통제하면서 윤리적 이유와 사회 규칙을 존중하고 대의를 위해 정의, 자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보면 합법적으로 인간을 식량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인간의 특성이 동물에게는 없다고 본다면, 동물을 인간처럼 대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들은 이런 사고방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 중에도 위에 나열된 특성이 부족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일부는 인지장애가 너무 심해서 태어난 후의 삶은 우리가 잡아먹는 동물의 삶보다 훨씬 더 의미가 없다. 일부는 우리의 윤리적 협력 시스템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간이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 보다 보살핌이나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지 않으며, 그들을 식용으로 키우고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배려와 존중을 삶을 의미 있게 살거나 윤리적으로 협업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보일 수는 없다. 이런 특성이 부족한 인간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태도가 종종 인지 장애인에게 정당해 보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최소한의 공통점"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들은 "최소한의 공통점"이라는 특성은(예: 기쁨과 고통을 수용하는 능력이나 삶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능력) 당연히 동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인간에게서 찾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이 특성을 동물들에게서도 찾을 때도 인간과 같은 이유로 윤리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채식주의자들의 요점이다.

유명한 철학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동물과 종종 인지 장애인의 공통

점으로 육식을 "원칙상 잘못된 것"으로 보여주면서도 이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은
게 놀라울 수 있다. 그가 집필한 고전 책인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에서 "동
물에게 적합한 집단에서 행복하게 지낸 후에 고통 없이 빠르게 도축 당하는 방
목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육식을 하는 양심
적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지만, 그들이 사육하는 동물을 돌볼 수 있는 농장에
살지 않는 한 실제로 대부분이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본다."

싱어에게 육식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채식주의의 실제 사례는
육류가 실제로 생산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장애
인뿐만 아니라 다른 채식주의자들은 싱어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견을 우려한다.
동물과 중증 인지 장애인에 대한 싱어의 비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가 "양
심적으로" 운영하는 축산업을 지지한다는 건, 농장이 충분히 신경 써서 운영된다
면 적어도 원칙상 인간을 키우는 농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일 것이
다. 이 결론을 막기 위해 많은 채식주의자들은 동물과 인지 장애인이 "최소한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존재가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싱어의 비유를 다시
사용했다. 그리고 동물에게 사육과 도축에 대한 윤리적 권리가 있으며 인지 장애
인들만큼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이 윤리적으로 인간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말에
터무니없다고 여기거나 의견을 거부하고 싶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물이 우리
와 동등하다면 동물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이의제기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투표에는 앞서 논의한 인지 능력이 필요
하기에 투표권은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동물이 투표권을 가질 수 없지만, 중증 인지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똑똑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공익을 사랑하는 성인으로 자
랄 것이라 기대되는 어린이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요점은 아동(및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성인)이 특정 권리와 특권을 받기엔 부족하더라도 그들에게 적
절한 방식으로 보살핌과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여긴다.

"원칙상 잘못된 것" 관점의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기준을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믿으며 동물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존중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동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우스꽝스러울 것이다) 동물의 이익을 존중하고 우리의 요리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해야 상품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존중의 정체는?

윤리적 지위를 "최소한의 공통점"이라는 특성과 연관 지으면 중증 인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려할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동물의 윤리적 지위에 관한 채식주의자의 신념을 생각해 보면, 이 신념은 동물에게 의무감을 가지는 게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또 다른 행복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중요한 철학적 수수께끼를 만든다. 앞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논의했을 때, 사람들은 인간이 의미 있고 함께 삶을 살아가며 윤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동물에게는 수준 높은 특성이 없어서 인간과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근본적으로 가정해보자면, 이렇게 구별되는 인간의 능력이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동물의 능력이 중증 인지 장애인들의 능력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채식주의자들은 인간의 특성이 있는 존재와 그런 특성이 결핍된 동물은 아주 다른 윤리적 수준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높은 윤리적 지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첼로 연주를 하거나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윤리적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하지만 어떤 존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거나 그의 윤리적 협력 여부가 지위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인간(중증 인지장애인 포함)이 받는 배려를 동물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인간은 동물보다 더 많이 배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엘리스(전형적인 육식주의자)가 윤리적 지위의 수준인 동물에게 하는 "연민"을 요구하는 수준과 인간에게 하는 "존중"을 표현한다고 가정해보자. 엘리스가 생각하는 "연민하는" 수준의 배려는 인간을 포

함한 모든 동물이 가진 특성에 기반한다. 동물과 인간은 고통을 겪거나 그들의 삶을 경험하거나 등등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가 보기에 동물과 인간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인도적으로 대우받을 가치를 존재이다. 연민을 느끼면서 하는 배려는 비인간적인 축산업과 갈등상태로 놓이게 할 수 있다(3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엘리스는 진정한 연민을 보이면서도 식량을 얻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예를 들어 동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고통과 두려움 없이 죽음이 오게 함으로써).

인간이 연민 이상의 자격이 없다면 엘리스는 "양심적인 잡식주의자"가 가축을 대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론 엘리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인간이 연민뿐만 아니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엘리스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윤리적 협력 능력과 같은 뚜렷한 인간적 특성에 근거한다고 여기는 이 높은 수준의 배려는 인도적 대우 이상을 요구한다. 엘리스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식량을 위해 사육하고 도축하는 행위를 배제한다.

이제 엘리스가 이 장을 읽고 나서 독특한 인간의 특성과 동물이 받는 배려 수준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특성을 가진 개체에 대한 배려와 그런 특성을 가지지 못한 개체에 대한 배려는 다를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지적으로 우수한 인간이라고 하여 닭, 돼지, 소와 같은 동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 엘리스가 인간 고유의 인지적 특징들 때문에 인간들에게 존중의 태도를 보였다고 본다면, 그런 특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동물이나 인간 그 밖의 생명체들에게 그저 "연민의 정"으로 보여주는 배려에 불과한 게 아니었을까? 엘리스가 거짓에 근거한 오류로 '존중'이 반영된 배려를 보이지 않는 건 왜 안 될까?

비유가 이 점을 더 강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특정 인간은 "왕족의 혈통"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윤리적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이 왕족들은 평민들로부터 특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다("충성서약"으로 알려져 있음). 마찬가지로 그들은 왕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타고 났다고 여겨졌다. 고맙게도 요즘 사람들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왕족"에게 윤리적 수준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생각을 거부한다 해서 모든 사람을 왕이나 여왕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도 왕족의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윤리적 협력 능력으로 윤리적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왕족의 혈통"으로 구분하는 만큼 근거가 없다고 보게 되었다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왕족"이라는 개념이 있던 것처럼, 왜 구분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결론이 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존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거가 없다고 간주하고 누군가에게 "연민"을 이상의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3. 설명의 필요성

“원칙상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중의 전반적인 개념이 잘못 인도될 수 있는 여부에 거의 관심이 없다. 우리 대부분의 직관에 따라 그들은 존중이 인간 사이에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수준의 존중을 동물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기존 존중의 의미를 채식주의자들이 공격할 때, 그들이 이러한 만족감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논의해 봐야 한다. 존중이란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수록, 왜 그런 존중이 정당한가에 대한 난제들과 봉착하게 될수록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된다.

내가 당신의 물건을 훔친다면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해보라.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 당신에게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고 나에게서는 훨씬 큰 가치가 있더라도 범죄라는 점에 유의해라.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의 물감 세트가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화가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다른 취미가 생겨서 물감 세트를 조금 사용하다가 치워둔 부유한 딜레탕트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보지 않을 때 내가 물감 세트를 훔친다면 당신이 잃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내가 당신보다 물감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물감 세트를 훔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고 무례한 일이다.

하지만 유의 할 것은 이 경우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제치고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가게 주인이고 내가 옆에 경쟁업체를 차리게 된다면 나는 당신의 고객을 뺏고 여러분의 가게도 파산시킬 수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 큰 비극일 수 있다. 내가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내가 당신 옆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내가 당신의 생계에 재앙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당신을 이길 권리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연민의 이상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과는 중요성이 다르다. 부유한 텔레탕트인 당신이 물감 세트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가난한 화가를 알게 되었다면, 연민으로 인해 물감 세트를 포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업주는 특정 위치가 다른 가게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연민을 가지고 매장을 다른 장소에 열 수 있다. 이런 것이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존중과 연민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대로 이뤄진다.

위의 예시에서는 존중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관심으로 귀결되지 않는 이상한 것이라고 보여준다. 존중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특정한 제약을 가하고 존중을 보일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제약과 요구는 보호해야 할 이익의 강점을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는다. 때로 우리는 약한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할 의무감이 있고, 때로 강한 이해관계를 존중할 의무(존중의 의무, 연민의 반대)도 없다.

이 수수께끼 같은 존중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하지만 육식에 대해 "원칙상"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바로 적어도 역사적으로 존중을 이해하려는 도덕 이론가들의 노력이, 일반적으로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논의한 독특한 인간 특성을 중심으로 다뤄졌는가이다. 도덕 이론가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강조했고 일부 사람들은 특정한 특성은 다른 사람들과는 관련 없다고 봤다. 하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이 합의를 폭넓게 할 수 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규칙 체계가 지배하는 정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 규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치거나 착취할 것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영역을

만든다. 또한 인간이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규칙은 가치와 염원에 따라 인간의 삶을 만들 수 있게 보호해주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계획에 인간은 충실히 참여해서 공동 번영을 약속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공통의 존엄성을 확인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게 한다.

철학적 학문 배경을 가진 독자들은 당연히 이 모호하게 재구성된 세부 사항 일부를 논의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학문적 문제는 제쳐두고 이 일반적인 추론이 단순히 연민으로 이어지지 않는 존중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왜 타당한지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위의 주장에서 존중은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협력의 필수요소이고 단순히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위태로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규칙과 관행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고 소통하고 번영하는 독특한 방식에 집중해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윤리적 삶의 중요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인간의 독특한 특성도 인간이 베푸는 배려와는 상관이 없어서 채식주의의 작가들은 누군가가 연민도 존중받아야 할 이유도 상당히 어렵게 설명한다. 물감 세트와 새로운 사업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자.

협력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가는 독특한 방식을 고려해 보면, 인간에게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 규칙이 있어도 시장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규칙이 없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과 종종 인지 장애인과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통점"이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춰보면 존중의 기이한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근거 없는 '왕족'이라는 개념처럼 존경의 근거를 거부하는 게 정당한지는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최소한의 공통점"을 주장하는 옹호자들은 존중에 대한 전통적인 의견과 이 의견을 기반에 둔 인간의 독특한 특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마치 기존의 의견은 본인들이 선택한 채식주의에 대한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고 "최소한의 공통점" 주장의 대안으로 대체되는 윤리적인 협력하거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인간의 특성을 이 주장의 대안으로 보았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존의 의견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단순히 연민을 보이는 대

신에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 되었다. 작가들이 제안하는 대안이 되는 기반을 통해 특별하게 경의를 표하는 "존중"은 서로에게 의욕을 꺾고 심지어 기이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내가 말한 어떠한 말도 존중이 정당하다고 증명하지는 못한다. "왕족"처럼 "존중"이라는 개념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이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려면 ("원칙상 잘못된 것" 관점 옹호자들이 추구한 것처럼) 모두에게 존중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원칙에 입각한 채식주의 작가들이 이러한 태도가 인간 특유의 특성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도덕 이론가들이 기존에 주장해 온 것과는 반대로),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인간과 함께 동물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어떤 것이 도덕성에서 중요한 요소인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존중"은 "충성"과 비슷할 것이다.

4. 차별의 대가

논의를 위해 최소한의 공통점을 주장하는 지지자들과는 다르게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윤리적 협력 능력의 특성이 있는 존재가 윤리적 지위 차이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인지 능력이 높은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존중이 당연한 이유가 설명된다. 하지만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피터 싱어의 도발적인 의견에 다시 직면해야 한다. 특성이 없는 인간에게 우리의 행동 방식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말했듯이 일부 인간은 너무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특성이 절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중증 인지 장애인에게 우리와 같은 윤리적 지위가 없다고 의미하는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연민"을 느끼며 이들을 사육하고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나의 솔깃한 답은 특정 인간에게 윤리적 중요성의 기초가 되는 특성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은 다른 인간과 같은 배려를 받을 자격

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에 명백하게 반박하는 의견이 있다. 인류가 무슨 자격으로 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가? 이 인간들이 우리와 닮았다는 이유 때문인가? 우리가 이와 관련이 있는가? 외모나 가족 관계 (그들의 윤리적 지위와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와 같은 특성에 호소하는 게 차별을 위한 연막에 불과하며, 우리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이 “종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당한 태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수많은 채식주의 작가들이 일반 동물과 동등한 수준에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가했다. 동물에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윤리적 배려가 무엇든 간에 중요한 차원에서 볼 때 유사한 특성이 있는 존재에게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일관적으로 중증 인지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른 유사한 존재를 사육하고 도축하는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을 사육하고 잡아먹는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동물에게도 틀림없이 잘못된 행위라고 봐야 한다.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대답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도 인간을 사육하고 잡아먹는 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현재 식량으로 여기는 동물에 이 관점을 적용해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된다.

육식주의자들은 이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중증 인지 장애인을 잡아먹는 게 잘못되었다고 단언할 때 그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상의 시나리오를 적어 보자. 미래에 언젠가 인간의 뇌를 공격하는 불치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영구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소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감염시켜서 우리가 검토했던 특성이 있는 인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특별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거나 윤리적 협력이 필요한 발전 계획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종의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지구의 생태계에서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 문명의 흔적은 지구에서 사라진다. 어느 날, 지능이 높은 외계인들이 지구를 발견한다. 맛있는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외계인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을 사육하기 시작한다(논의를 위해 “양심적인 잡식주의자”의 기준을 우선으로 해서 기른다고 가정한다).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모르는 외계인들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의미 두지 않는다. 그들은 식량을 위해 많은 인간을 사육하고 죽이며 "양심적인 잡식주의자"가 동물에게 보여주는 배려 그 이상을 베풀지 않는다.

우리가 동물을 대우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종 차별"을 반대하는 육식 반대주의자에게는 외계인이 중증 인지 장애인을 대우할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우리가 얼마든지 소를 사육하고 잡아먹을 수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인도적이고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럴 경우, 우리가 아닌 외계인들에게도 똑같이 허용되는 행위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반종족주의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게 만든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축으로 취급되는 동물은 현재 육식주의자들이 가축으로 여기는 동물에게 적용하는 윤리적 특성 측면에서 비슷해 보인다. 그들이 인류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다른 기준을 부여해야 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채식주의를 옹호하려면, 육식주의자들이 외계인들에게 허용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인가? 육식주의자인 나는 이 결론에 저항할 의향이 전혀 없다. 시나리오에서 인간이 소의 인지적 수준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면, 외계인이 인간을 대우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소를 대우하는 모습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인간적이고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하게 사육되었을 때, 식량을 위해 사육하고 도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외계인의 행동은 문제없어 보인다.

그러나 외계인이 중증 인지 장애인을 잡아먹을 수 있다 해서 그들을 식량처럼 취급할 수 있는지는 더 골치 아픈 질문이 된다. 일부 채식주의 작가들은 이러한 대칭적 사고가 바로 위와 같은 생각과 이어지는 것처럼 썼고, 오직 "종 차별주의"만이 이 주장을 부정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아마도 육식주의자들은 이 추가 결론을 거부할 것이다.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 중증 인지 장애인은 단순하게 우연히 마주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자녀이며 종종 형제자매, 사촌 또는 이웃이다. 중증 인지 장애인은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구성원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 구조 일부이다.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상할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부모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식을 적절한 음식 메뉴로 보는 건 이상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다른 많은 고려 사항들은 종종 장애가 있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발견한 외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종 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러한 세부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에게 보여 주지 않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윤리적 지위의 기본이 되는 특성이 장애인에게는 부족하더라도 동족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는 태도가 옳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의 사항들은 외계인을 사례로 들면서 종종 인지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의 판단을 부정하는 이유를 알려 준다. 하지만 이 주장이 결정적인가? 채식주의자는 이 주장을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인간의 심리와 가족 관계에 대한 사실이 종종 인지장애가 있는 구성원을 돌보지 않고, 식량만을 위해 돌보기로 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하지 못한다고 걱정할 수 있다. 차별에 대한 불만을 감안 할 때, 우리가 동족을 편애한다고 주장하는 채식주의자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근절하려고 노력해 온 "종차별주의자"의 편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건 당연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결론을 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외계인의 사례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태도 및 관행을 식별해보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인간과 동물의 인지적 특성이 겹치는 점을 지적하는 채식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종종 인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방법은 현재 그들에게 하는 배려를 동물들에게도 동등하게 보여주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한 논의에서는 반대편에 더 그럴듯한 결론이 있다고 한다. 장애인들에게 타고난 특성보다 그들에게 더 배려하는 행동이 차별이라고 느껴진다면, 현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존중을 멈추고 그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의미하는 듯하다.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실은 종종 인지 장애인을 편애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동기 부여를 한다. 하지만 위의 의견이 옳지 않다면, 원칙에 입각한 육식 반대론자들이 옹호하는 윤리적 견해를 지지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나는 우리 대부분이 불쾌해하는 장애인에 대

한 관점을 권유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5. 동료를 잡아먹는다는 것

1978년에 중요한 기사에서 코라 다이아몬드(Cora Diamond)는 우리가 논의해 온 육식 반대 논쟁을 육식주의자의 관점이 아니라 채식주의자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녀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동물권 수호자들이 육식의 잘못을 설명할 때 식량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이 같은 목적에서 중증 인지 장애인을 키우고 죽이는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에 집중한다. 하지만 키우고 죽이는 것과 같은 문제는 요점을 크게 벗어났다. 이러한 행위가 없어도 인간을 잡아먹는 건 반대할 만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는 시신을 먹지 않는다”라며 “교통사고나 벼락을 맞아 죽고 나서 생긴 인육이 최고일지라도 먹지 않는다”라고 썼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채식주의자들은 동물들의 삶의 질이 좋아서도 동물을 잡아먹는 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사슴이 교통사고나 벼락 맞고 죽은 경우에도 사슴을 먹는 것은 채식주의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다. 다이아몬드의 관점에서 육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 모두 인간을 식량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처럼, 채식주의자의 관점에 대한 총론은 동물이 단순히 식량의 개념이 아니라는 확신이 설명되어야 한다.

다이아몬드는 채식주의자 신념에 대해 확실하게 변호하는 건 망설인다. 하지만 이해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적어도)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한편으로는 동물이 식사를 위한 정신적인 이유라고도 하는데, 닭가슴살, 돼지갈비, 햄버거 등이 존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른 면에서, 풀밭에서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유인하려고 모이통을 걸어놓은 다음, 집에 데려가 간호할 수 있는 존재인 우리의 “동료”라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동물을 “동료”로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식량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모이통에서 새를 관찰할 때 보통 “잡아먹을 만큼 살이 충분히 올랐는지 궁금하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는 채식주의

자들이 우리에게 동물을 잡아먹지 말아달라 할 때 이 후자에 해당하는 생각이 적어도 조금은 자신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한다. 그들은 동물을 식량으로 보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다른 동물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반화시켜서 동료라고 여겨야 한다고 본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인간을 동료로 여기듯이 동물도 동료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채식주의자들이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기를 얻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육식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이아몬드의 설명을 토대로 생각해보자. 더불어 특정 맥락에서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가 동물을 자연스럽게 식량이 아닌 “동료”라고 여기는 관점(예를 들어 야생 동물이나 반려동물)을 잘 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목적을 위해 해야 할 질문은 “동료”라고 여기는 대신 특정 맥락에서 특정 동물(예를 들어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여길 때 육식주의자들이 과연 윤리적 실수를 저지르지이다.

다이아몬드가 인정했듯이 단순히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이 질문에 답을 내릴 수는 없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사람들이 현명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동료인 인간을 칼로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외과 의사는 수술실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재미로 얼굴을 때리는 건 생각도 하지 않지만, 복싱 체육관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어떤 맥락에서는 동물을 “동료”라고 보고 다른 맥락에서는 “식량”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태도가 서로 다르다고 단단히 말할 수는 없다. 동물들을 식량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불쾌한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른 인간을 잡아먹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 다이아몬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인간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그들을 먹거리로 보는 건 말도 안 되고 “존엄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본 바로는, 식인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해하지 않고(예를 들어, 인간이 자연사한 후) 식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점이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인간을 바라보는 특정 방식과 관련 있고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본다는 게 위의 생각과 상충 된다는 게 문제다.

외과 의사는 수술실에서 환자의 몸을 절개하거나 복싱선수가 링에서 상대를

치는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먹거리로 보는 사람에게서는 상대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는 태도가 보인다고 믿는 것 같다. 물론 인육을 먹는 것이 왜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상충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확실히 식인 문화가 있었고 그중 어떤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을 먹는 행위가 불경한 게 아니라 공경하는 태도라고 여겼다. 특히 죽은 사람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위험한 질병 때문에 인육을 먹지 않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우선 이러한 실용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사후 인육을 먹는 행위가 원래 품위가 없다고 묻는다면, 궁극적으로 모욕과 잡아먹히는 것 간의 연관성은 단순히 문화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퍼즐은 잠시 제쳐두고 인간을 식량으로 보는 관점이 존엄성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인정해보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동물을 식량으로 보는 관점이 이와 비슷하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다. 불행하게도 다이아몬드의 설명으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사실 채식주의자를 포함해서 동물이 적어도 일부 맥락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동물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긴 한다. 동물은 포식자의 먹이이자 하이에나의 먹이이자 박테리아의 먹이다. 인간(또는 심지어 시체)이 사자의 무리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면 억울하겠지만, 같은 운명이 동물에게 닥칠 때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는다(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모습을 보기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원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섬세한 감성의 산물이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자연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다른 동물을 보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종종 일상생활에서 "동료로 여기는 생물"에게 보이는 태도와 대조된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동네에서 동물을 볼 때 일반적으로 식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은 옳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 두 가지 태도가 같등에 놓이면 대부분은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생태계 일원으로 보기보다 동료 생물로 여기는 생각을 더 쉽게 버릴 것이다. 어치 한 마리가 모이통에 있는 다른 새들을 위협하는 것을 볼 때, 어치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때

가 급습하여 어치를 점심으로 삼는다면 나는 이 관점을 빨리 떨쳐버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료로서 인간을 생각하는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 강둑에서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결국 우리는 동물들에게 먹이가 되는구나!"라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은 잡아먹힐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확신한다(일부 사람들은 이 견해를 너무 따라서 벌레가 관 안의 시체를 분해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한다). 반면 우리가 "동료로 여기는 생물"이라고 보는 동물에 대해선 이러한 생각이 훨씬 확고하지 못하고 생태적 역할이 드러나면 동료라는 생각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식량이 아니지만 다른 동물은 맞다.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야생 동물이 서로 잡아먹는 모습을 불편해하지만, 생태계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포식자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때로는 이 관점으로 인해 환경론자들이 동물 권리를 주시했고 이는 자연 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막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요점을 벗어났다. 포식자의 존재를 한탄하는 채식주의자조차도 야생 동물이 자연사하였을 때 저녁 식사로 독수리가 사체를 찢어 먹어도 된다고 인정할 것이다. 요점은 그러한 관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보통 인간에 대한 관점과 동물의 사체에 대한 관점을 매우 다르게 본다는 점이다. 독수리가 인간의 시체 위로 내려오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독수리를 쫓아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생태학적 기능을 저주할 것이다.

이 예시는 다이아몬드의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동물을 생각하는 방식, 즉 동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인 관점을 바꾸게 한다. 인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완벽하게 대우받고 죽었다고 해도 그 시신을 먹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해 보인다. 인간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시신을 사자, 악어, 독수리가 시체를 찢기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움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먹거리가 아니라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역시 동물을 먹거리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생태학적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물이 식량임을 인지할 것이다. 이 사실이 맞다면,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동물에게 부여했으면 하는 중요성과 의미는 미약해 보인다. 적어도 사람들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동전의 다른 면에서, 일부 독자들은 이 논의에 이끌려 반대로 야생 동물이 인간을 먹을 것으로 취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인간을 자연의 질서 밖에 두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생태적 이해와도 팽팽하게 맞서있는 일종의 예외적 지위라고 볼 수 있다. 호주의 에코페미니스트 철학자 발 플럼우드(Val Plumwood)는 악어의 공격으로 죽다 살아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자나 악어와 같은 포식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포식자가 균립하게 만드는 생태계 능력은 생태계의 보전성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악어와 다른 생물들도 우리가 사는 생태계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포식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때, 인간도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공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상호 생태적 측면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적어도 플럼우드의 의견은 상당히 도발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채식주의자의 사례를 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다이아몬드의 목적은 우리가 인간을 먹을 것이라 여기는 게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처럼,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물에게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플럼우드의 관찰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을 먹거리라고 여겨서 생기는 불편한 마음은 생각보다 근거가 약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은 동물이 인간과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 기보다는 서로 존경심을 보이는 태도에 의문만 제기하게 할 뿐이다.

6. 조기 도축

이 장에서 검토하고 싶은 채식주의의 마지막 주장이 하나 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것처럼, 식용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프 맥마한(Jeff McMahan)은 축산업자들이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현대 육류 생산에는 자연 수명이 다하기 전에 동물을 죽인다고 날카롭

게 지적했다. 동물이 온전한 삶을 살길 바란다면 도축은 그들이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다. 동물의 권리를 진지하게 고려해봤을 때, 그들의 권리 박탈은 오직 강력한 이익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전 장에서 논의했듯이 닭가슴살, 돼지갈비 또는 햄버거까지 동물이 희생했다 해서 우리 중 누구도 충분한 가치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맥마한은 음식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이 결론과 더불어 맥마한은 "인간적" 농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물에게 불편함이나 고통,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고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물의 인지 능력에 대한 논쟁적인 주장에 기대지도 않는다. 그는 동물이 의식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거나 동물을 죽이면 동물이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가 좌절될 수 있다고 호소하지 않는다. 맥마한에게는 단순히 동물이 제 생을 다할 때까지 사는 것이 좋으며(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른 죽음은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친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맥마한의 입장을 평가할 때 육식주의자와 잡아먹는 동물 사이에서 이해의 균형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그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자. 동물이 죽임을 당해서 잃는 평생의 웰빙을 생각한다면 육식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육식주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식량 때문에 동물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 답이 명확하지 않다.

어려움의 첫 번째 원인은 맥마한이 밝히는 이익의 윤리적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이 장에서 이익을 존중하는 의무가 항상 그 힘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우리의 이전 예시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내가 당신의 물감을 사용해서 더 큰 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당신이 나에게 줄 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내 돈을 조금이라도 훔치지 않고 당신의 이익보다 내 손실이 더 크더라도, 시장에서 경쟁자인 나를 파산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누군가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무와 약간 관련이 있다. 때로 우리는 적은 이익을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의무가 있고, 사소한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는 이유의 장점으로는 맥마한이 종종 자신

의 주장을 내세울 때 제외하는 사항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이익을 소홀히 해서 불편함, 고통 또는 두려움이 생길 때, 당신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하는 특별하고 강력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당신의 평생 열망이나 프로젝트가 내 특정한 선택과 관련되어 미결정 상태에 있다면, 당신을 존중하도록 나의 의견을 강하게 세울 것이다. 협동 계획으로 인해 서로가 참여한다면 더 많은 희생의 이유가 생길 수 있다. 당신과 내가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상호주의 시스템은 우리의 비용으로 서로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이유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맥마한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서 이와 같은 사항에 호소를 포기한 것을 봤다. 그의 요점은 식량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타격을 입히거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협력 조건을 위반한다는 점이 아니다. 오히려 동물을 일찍 죽여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언뜻 보기에는 적어도 맥마한이 제쳐두기로 했던 모든 요소와 별개로 생각했던 이익이 그의 결론을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윤리적 의무를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오후에 당신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당신이 원하는 시간) 내게 도움 될 경험을 놓치게 될 거라고 상상해보자. 분명히 말하자면 친구들을 본다고 해서 내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친구들을 보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뿐이다. 질문에서 말한 이익은 나의 계획이나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사실 나는 이익을 고려해 본 적이 없고, 나 때문에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기대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 될 것이다.

내 이익을 따른다고 해서 당신과 내가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보답하거나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며, 지금 당신의 이익을 희생하려는 듯이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내 희생으로 이익을 얻을 일은 없다.

이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 나 때문에 당신은 이익을 희생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의무인가? 아니면 그런 시나리오에서 "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하면 당신은 잃는 것이 있겠지만, 당신에게 너무 가까운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내 생각에는 후자의 답변이 전적으로 맞다.

이와 같은 예에서 너무 많은 것을 추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물은 단순히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닐뿐더러 비협조적인 편도 아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예시의 요점은 단순히 다음 요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맥마한이 인정하는 모든 경고를 말해보면,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육하고 식용으로 도축하는 것이 동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생을 다하기 전에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동물들이 좋은 것을 누릴 기회를 박탈한다는 맥마한의 의견은 옳다.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이 점이 우리가 만 들면 안 되는 손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맥마한의 입장에 대한 두 번째 어려움은 전형적인 농업 운영에서 축산업자가 동물을 죽일 의도가 있기에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축산업자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특별히 동물을 사육한다. 일단 동물이 있으면, 동물로서 잡아먹히지 않고 축산업자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 더 낫다. 하지만 실제로 이 후자의 옵션이 의미 있지는 않다. 축산업자의 선택은 육류 생산과 농장의 동물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 아니라 육류 생산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 그 사이에 있다.

일부 육식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많은 동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양심적인 잡식주의자의 요구로 다뤄지는 동물은 짧아도 상당히 좋은 삶을 살 것이다. 물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짧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맥마한은 우리가 존재의 "좋은 점" 또는 "나쁜 점"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육류 생산을 없애면 농장의 동물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겠지만, 단순히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을 잃는 것이 윤리적 비극을 나타내는지는 의심해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육류 생산이 윤리적으로 필수적인지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바로 육류 생산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육식을 멈추게 하려는 대안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식량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이 윤리적 중립을 지킨다고 판단되면 축산업자와 육식주의자들이 원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양심적인 잡식주의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동물들이 태어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지 않는다면, 양심적인 채식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동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존재하는 게 낫다고 말할 순 없어도 동물이 존재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기에 육식을 해도 되는 세상에서 살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맥마한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식량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관행과 애초에 동물을 사육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가 봤을 때, 고기를 얻기 위해 동물 사육과 관련한 여러 별개의 행동들이 있고, 이 행동들은 함께 평가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하나의 행동으로 일련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여러 행동으로 각각의 결과가 나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썼다. 맥마한은 축산업자가 도축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그 행동은 독립적인 장점에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개인의 행동은 당시 유리한 사항에 의해 결정되며, 이 행동을 포함한 더 큰 관행이 옳다 해서 이 행동도 꼭 옳게 행해질 순 없다.”

맥마한이 만연한 관행에 호소해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책이 도덕철학 문헌인 점을 고려했을 때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무수한 영역에서 다른 많은 이유로 근거가 없거나 심지어 잘못되어 보이는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처럼 호소한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양한 실천 기반으로 호소하는 것이 설명된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 소화전을 사용 못 하게 하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봤을 때 바보 같아 보이는 계약을 왜 유지해야 하는가? 살인미수자가 자신의 죄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해서 왜 석방되어야 하는가? 타자가 스트라이크 3개를 받았다고 아웃이 선언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각의 경우에 내린 대답은 조처에 담겨 있는 전반적인 관행을 고려해서 나온다. 맥마한이 관행에 기반한 호소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는 힘겨운 싸움에 직면하게 된다.

맥마한의 주장은 일상적인 윤리적 사고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괴이해 보이는 육식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맥마한은 축산업자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인도적 육류 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의 조처 이상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맥마한은 자신의 관점에서 “육질이 가장 좋을 때 도축

하도록 유전적으로 계획한 동물 품종"을 만들어 육류를 생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육류 생산을 자동화해서 공정이 일단 시작되면, 이제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동물을 사육하고 도살한다고 그는 주장했고, 이는 전자와 주장이 양립할 수 있어 보인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인간의 행동으로 동물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아서 맥마한이 우려할 내용은 없다.

나는 진심으로 불신은 공식화된 주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육류 생산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도덕성 문제가 아직은 단일 행동으로는 안 되고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좀 이상해 보인다. 인간이 딱 한 번 개입해서 진행되는 공정만이 삶을 다 살려는 동물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히나 이상해 보인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동물이 유익한 경험을 했는지라면, 동물이 동등한 삶을 경험한다고 봤을 때, 유전 공학, 완전 자동화 및 채래식 도살을 통해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관행에도 윤리적 동등성을 부여해야 한다. 맥마한은 어려워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분리하는 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지만, 윤리적 채식주의자는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구축하는 게 최선인지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동물을 죽여서 삶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동물의 이익을 해친다는 그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과 식량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우선, 이렇게 한다 해서 손실이 없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주인이 동물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동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문제는 더 모호해진다. 또한 맥마한이 확인한 동물 권리 박탈이 양심적인 채식주의자가 옹호하는 방식으로 육류를 생산해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맥마한은 인간이 동물과 비슷한 기능 수준의 심각한 인지장애를 나타내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는 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올바르게 육식하기"에 대해 특히 잘 구분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장에서 인지 장애인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대우가 특별하다는 것을 봤다. 사실, 코라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식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맥마한의 설명보다 더 엄격하다.

맥마한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이 자연적인 삶을 다 살게 되더라도, 우리는 동료 인간을 식량을 위해 사육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의 독특한 친밀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 맥마한의 주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태도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맥마한이 "너무 불쾌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관점은, 중증 인지 장애인이 동물보다 높은 수준의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밀어붙일 뿐이다.

7. 양심적인 잡식주의자의 가능성

윤리적 채식주의의 핵심 논지는 육식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잔인하고 불공평하고 지속 못 하고 안전하지 않은 관행으로 현재 대다수의 육류가 생산되고 있다는 주장들로 주로 내용이 전개된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육식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관행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본다. 자칭 "양심적인 잡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의 핵심 윤리적 논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엄격한 도덕 기준에 따라 생산된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채식주의자들은 양심적인 잡식주의자의 입장을 반박하려고 육식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비록 고기가 인도적이고 공평하며 지속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산되었더라도 말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따라 몇 가지 주장을 살펴봤고 부족함을 발견했다.

- 나는 동물의 윤리적 지위가 우리와 동등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려고 '존중'이라는 핵심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이어가려면 서로 융화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협력 능력과 같은 인간만이 가진 특성을 어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려와 중증 인지 장애인에게 하는 배려의 구분

이 '종 차별적'이라는 의견을 반대하기 위해, 나는 우리가 인간을 편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반대한다면 우리가 종종 장애인들의 지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불쾌한 결과만 나올 것이다.

- 동물은 원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을 반대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평가한 일반적인 동물의 생태학적 역할이 식량이 아니라는 의견에 주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 농장에 사는 동물들의 온전히 사는 삶의 이익을 박탈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의견에 이러한 이익이 진정한 윤리적 의무를 초래하는지를 묻는 질문했다. 특히 동물을 위해서라는 도축에 관한 대안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장의 주장이 맞았다면 윤리적 채식주의의 핵심 논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양심적인 잡식주의자는 일반적인 생산 방식 때문에 육식이 문제가 될 뿐이며, 동물을 인도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하게 사육하고 도축한다면 고기를 먹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결론이 인정된다면(물론 채식주의자들은 왜 인정되어야 하는지 반박할 수 있다) 육식에 관한 핵심 질문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윤리적 채식주의자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지만 이제 우리는 "적어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가 더 나은 답변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근거를 살펴봤다.

하지만 이 결론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실에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 동물은 양심적인 잡식주의자가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육된다. 1장에서 말했듯이, 이 책의 목표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 육식주의자처럼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례를 찾는 게 내 임무다. 이처럼 추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고기보다 더 양심적인 축산업자들이 생산하는 고기를 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자, 이제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보자.

3장 99%의 다른 것

앞 장에서 나는 동물을 인도적이고 평등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키웠다면 윤리적으로 육식은 해도 된다고 했다. 육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윤리적 채식주의의 핵심 논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위의 주장을 신뢰한다더라도 요즘 시장에서 사실 육류 생산은 항상 동물, 근로자, 환경 및 공중 보건 문제를 우려하게 만들기 때문에 윤리적 채식주의자들의 의견에 더 신뢰가 갈 것이다. 고기를 "그냥" 먹고 싶을 때 깐깐하게 생산된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말에 나는 아직 만족할 수 없다. 양심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는 아직 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더 어려운 질문을 다룬다. 나는 이 장에서 육류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살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 문제와 소비자의 의무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르게 말하면, 육류 반대론자들이 업계의 관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육식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 방법과 상관없이 육류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다.

시작하기 전에, 육류산업의 관행에 대한 개요를 제대로 보려면 책 한 권의 분량이 나올 정도로 다뤄야 할 내용이 많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대신 미국에서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를 생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행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겠다. 다른 유형의 육류 생산 방법(예: 칠면조, 양고기, 생선, 조개류), 육류가

아닌 동물성 제품(예: 유제품, 달걀, 가죽, 꿀)과 타 국가들 및 미국의 특정 집단의 관행들이(예: 종교적 도축) 포함된 것들은 여기서 생략할 것이다. 생략한 이유는 당신에게 육류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논의될 내용에만 의지해선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솔직히, 어쨌든 그게 상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초점을 좁힌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첫 번째로, 내가 앞으로 다룰 관행에는 육식 반대론자들이 확실하게 반대할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이다. 일부 윤리적 채식주의자들은 해산물, 달걀, 유제품과 같은 것은 예외로 삼지만 사실상 채식주의자들 대부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생산하는 닭고기, 돼지고기 또는 쇠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내가 논의할 관행에서는 육류산업이 잔인하고 착취이며 지속하기 어렵고 위험하다고 여기는 채식주의자들이 충분히 우려할 만한 내용을 다룬다. 따라서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룬다더라도 미국에서 일반적인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근거를 잘 보여줄 수 있다면, 비슷한 주장들로도 다른 육류 및 동물성 제품을 먹어도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닭고기

미국에서 식용 닭(양계업에서는 “육계”라고 알려져 있다) 농장에서 부화하고 길러지는 것부터 시작한다. 암탉에게서 알을 가져오고 부화할 때까지 잘 조성된 환경에서 부화 된다. 부화한 후에는 성별을 감별하고 예방접종을 맞히고 마릿수를 센 다음 바구니에 넣어서 농장으로 배달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식용 병아리는 수천 마리나 되는 비슷한 연령대의 병아리들과 사육장에 함께 있게 된다. 그곳에서 병아리는 증량하기 위해 먹고 마시며 몇 주의 시간을 보낸다. 목표한 무게에 도달하게 되면 직원에게 잡혀서 트럭에 실리고 가공 공장(도살장)으로 보내진다. 닭은 발을 잡혀 매달려지고 뜨거운 물에 담겼다가 전기 충격으로 의식을 잃게 된다(기절) (일부 공장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기절시킨다). 돌아가는 칼날로 의식을 잃은 닭의 목을 자르고 피를 뽑아낸 후, 털을 다 제거하고 다리를 자른 다음 내장을 다 비워낸다. 마지막으로, 살균처리를

하고 검사한 후 마트에 유통하기 위해 냉장시킨다.

이 과정에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보다 더 많은 복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몇 가지만 언급해보자면, 병아리가 병이나 건강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일반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병아리들은 기본적으로 고속 분쇄기에 넣어진다. 제대로 행해지면 즉각적으로 죽지만 실수나 오작동이 일어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병아리가 부화장에서 사육장으로 옮겨질 때 극한의 온도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수도 있다.

사육장에서 닭은 먹이와 물 공급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적박한 곳에서 사육된다. 닭들의 수가 증가하면 안은 점점 더 붐비며 내부 사육 조건은 일반적으로 혹독하다. 공기의 질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먼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축적된 수분과 노폐물은 고농도의 암모니아를 생성해서 닭의 목과 폐를 자극하고 가슴과 발의 피부를 손상시키며, 닭들은 기생충과 기타 병원균에 감염되기 쉽다.

미국 양계업에서 사용하는 닭은 빨리 자란다. 덕분에 생산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닭은 다양한 만성 질환과 골격 장애 및 운동 기능 장애를 얻기가 쉽다.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바로 인공조명이 설치된 환경에서 닭을 계속 깨어 있게 만들어서 훨씬 더 빨리 먹고 자란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닭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축산업자들이 닭의 건강을 챙기는 최적의 상태로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이윤을 얻게 하는 그릇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시판에 내놓을 수 있는 체중에 도달한 닭이 보내질 준비가 되었을 때 포획하는 직원은 종종 닭을 다치게 하며 공장으로 가는 도중에 혹독하게 일정을 강행해서 닭을 죽일 수도 있다. 공장으로 실려 온 닭은 전기 충격기에 실리면서 다칠 수 있고, 혹여나 기절 과정에서 실수하면 닭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닭은 끓는 물에서 깃털을 뽑는 기계에서 산 채로 간혀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주요 닭고기 생산업체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줄이려고 한다. 노력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는 줄어들겠지만, 문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모든 생산자는 시판용 닭을 기르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닭들

이 사망하거나 병이나 부상을 얻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다. 전국가금협회(National Chicken Council)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 5%의 닭이 사육장에서 조기 사망한다. 미국에서만 연간 90억 마리 이상의 닭을 사육하는 가금 업계에서 낮은 오류율로 수백만 마리까진 아니더라도 수천 마리의 닭을 잘못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닭을 사육하는 방법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가금업은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가금업은 사육에서 도축,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모든 일을 통제하는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다(“수직 통합”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닭을 직접 기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 대신 회사의 사양에 따라 번식과 재배 및 도축하는 다른 양계업자들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업자들은 2011년 평균 가계 소득이 68,445달러(전국 중위 가구 소득인 50,504달러와 비교된다)로 명목상 괜찮은 소득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많은 양계업자가 직면한 재정적 위험과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을 숨기고 있다. 외주 운영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0만 달러이다.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부채를 통해 조달하고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로 인한 소득 측면에서, 계약한 업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특정 비율을 보장받지 못한다. 대신, 생산량으로 받는 수수료는 절대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 업자들과의 조건을 상대적으로 보고 금액도 작업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업자들은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도 없이 수십만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될 수 있다.

계약한 업자들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보 수준으로 닭을 잡는 직원(즉, 닭을 잡아서 도살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상자에 넣는 사람) 또는 가공 공장의 근로자면 연간 약 22,000달러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직업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다. 닭장에서 직원은 보통 닭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상당한 농도의 자극적인 먼지, 암모니아 및 박테리아 내독소를 흡입한다.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라인 작업자는 정신적으로 지치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동작을 해서 손과 팔과 어깨 등에 만성

통증을 얻는다. 근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일은 공장을 통해 이동되는 동물을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해서 더욱 어렵다. 공장 직원들은 수십 명의 다른 작업자와 바짝 붙어서 일하기 때문에 특히나 질병에 취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초기 몇 달 동안은 육류 생산 시설과 육계 공장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바이러스는 23개 주의 수천 명의 근로자를 감염시켜서 초기 바이러스 확산의 핵심 통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정이 육계 업계 근로자에게 얼마나 나쁜지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로 학대를 보고하기 겁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가공 공장 근로자의 상당수는 불법 이민자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추방될까 두려워한다. 근로자들이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자 할 때 종종 가혹하게 질책받았다. 일부 회사들은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시도한 공장을 폐쇄했어도 다른 직원들과 신속하게 공장을 다시 열었다. 다른 고용주들은 더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는데, 노조의 가입한 사람을 심문하고 조직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동물과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되는 처우 외에도 현대식 사육 방법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닭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강과 호수로 흘러 들어가서 박테리아 오염과 해조류 번식을 일으켜 물고기를 죽이고 휴양지를 망치며 "청색증"과 같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닭 사육장은 악취를 발생시켜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관리가 잘 되는 곳에서는 악취가 오래가지 않고 주로 닭장을 청소하거나 분뇨를 비료로 살포할 때만 발생한다. 관리가 부실해서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그만큼 같이 축적된 암모니아가 사육장의 공기 질을 악화시켜서 외부에 냄새를 강하게 풍길 수 있다. 닭 사육장 내부는 붐비고 따뜻하며 습하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배양처가 될 수도 있다. 일부 양계업자들은 예방 차원에 투여해서 항생제를 포함한 특정 의약품을 투여해서 그 위험을 줄이려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에 내성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더 건강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질병의 위험은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변이를 일으켜 인간을 위협하게 만들 수도 있다. 변이는 과거에도 발생했기에(예를 들어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가 있다) 업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발병이 다시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덕분에 가금 산업에서는 양계가 환경과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때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연방 규정에 따라 추진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환경 보호국은 유거수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자들을 막기 위해 수질 정화법(Clean Water Act)을 시행했으며, 암모니아 및 기타 오염 물질을 통제하려고 공기 청정법(Clean Air Act)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경우에는 업계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기관과 협력했다. 미국 농무부의 동식물 건강 검사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전염병으로부터 닭을 보호하려고 업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주요 닭 생산자들은 엄격하게 질병 차단용 방역 프로토콜을 시행해서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닭 농장 안팎으로 질병을 옮기지 못하게 만든다.

일부 회사들은 더 나아가서, 사육사가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생제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탄소 배출과 물 사용을 줄이고 닭 사료를 재배하는 토지를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야심 찬 약속을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반대론자들이 걱정하는 환경 및 공중 보건 위험을 해결하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다 예방하지는 못한다. 농장은 계속 수질 및 대기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대식 농장의 혼잡한 환경은 건강을 위협하고 생산자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앞에 걱정했던 부분과 가금 산업에서 동물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을 보면 채식주의자들이 실제로 닭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인도적이고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된 닭고기를 먹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일반 닭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일반 닭고기 먹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닭 사육법이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 돼지고기

돼지 사육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양돈 산업의 관행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비교적 최근까지 미국에서는 돼지를 가축 사육과 작물 생산(일반적으로 옥수수 또는 대두)을 결합한 소규모 농장에서 키웠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양돈 산업은 상당히 통합되었고 많은 대규모 축산업자들이 이제는 다른 집약적 모델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돼지가 하나의 작은 농장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여러 전문 시설로 이동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일부는 사육 초기 단계나 후기 단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서 양돈 산업의 관행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보여주고자 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한 이해보다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사항을 다룰 것이다.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더라도 돼지고기 생산이 앞에 닭고기 논의에서 봤던 것처럼 윤리적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길 바란다.

미국에서 전형적인 돼지의 이야기는 어미로부터 시작된다. 번식용 암돼지는 다른 암돼지들과 함께 단체로 혹은 철제 축사에서 홀로 사육된다. 새끼를 낳을 준비가 되었을 때 암돼지는 분만틀로 옮겨지고 돼지를 붙잡아줄 수 있는 기구 바닥에 눕는다. (이 기구는 암돼지가 움직여서 새끼와 부딪히게 될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암돼지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는 동안 누워있을 것이다.

3주 후에 새끼들은 젖을 떼고(어미와 분리된다) 다른 새끼 돼지들과 축사로 이동하게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육방식이 있지만, 축사는 새끼 돼지들이 태어난 곳과 인접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위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새끼 돼지의 역할은 먹고 최대한 빨리 자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새끼 돼지의 몸무게는 5.9kg에서 6.8kg 사이이며,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127kg 정도까지 자란다.

돼지가 시판될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되면 트럭에 실어서 도살장으로 이동된다. 도착하면 돼지는 이동으로 인해 받은 고단함을 없애기 위해 1시간 혹은 그 이상 휴식을 취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고기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공자들은 작업 전에 돼지들에게 반드시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돼지에게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의식을 잃게 한다(일부 공장들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다). 돼지가 의식을 잃으면 도축되고 매달아서 피를 뺀 다음 탕박 방식으로 털을 제거하고 표면에 있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 불로 그을려서 남은 잔털을 제거한 후

배를 갈라 반으로 잘라서 냉동시키고 마트에 판매하기 위해 조각으로 자른다.

닭처럼 이 과정에서 여러 방면에서 복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몇 가지 예시를 다시 제시해보겠다. 먼저 새끼를 낳고 수유하는 암퇘지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분만틀은 극단적으로 돼지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특히 한 번에 몇 주간은 꼼짝 못 하게 한다. 심지어 암퇘지가 새끼를 낳지 않아도 몸을 돌리기도 부족한 아주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동물들은 단 몇 주뿐만 아니라 삶의 대부분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축사는 동물들의 음식물 섭취와 신체 건강을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엔 상당히 제한적인 환경이다.

돼지의 삶을 볼 때 첫 주에 새끼돼지들은 성년기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수컷 새끼돼지들은 성체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 성향의 발달과 고기의 약취와 맛으로 알려진 수퇘지의 냄새를 막기 위해 거세당한다. 미국에서는 거세의 고통을 덜어주는 약물요법 없이 일반 수술로 진행한다.

성장 초기에서 논란이 되는 또 다른 과정은 “꼬리 자르기”이다. 주류 농장에 있는 돼지들은 종종 서로의 꼬리를 문다. 때론 다른 돼지들의 먹이를 탐하는 욕구를 버리게 만들고 더위와 습도 등 만성적인 고통으로 인한 기분을 환기시켜준다. 꼬리 물기는 심각한 부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돼지들을 자기방어적으로 만든다. 돼지가 꼬리를 한번 다치면 다른 돼지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꼬리를 무는 일이 생긴다. 더 편안하고 고무적인 환경을 돼지들에게 제공하면 꼬리 물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해도, 많은 생산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초에 새끼 돼지들의 꼬리를 몇 센티미터 남겨두지 않거나 아예 꼬리를 다 없앤다. “꼬리 자르기”는 꼬리 물기의 원인과 심각성을 줄이지만 과정은 고통스럽고(특히나 마취 없이 행했을 때) 신경중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들어서 돼지들이 과민증을 겪거나 만성 고통에 민감해지게 만든다.

닭처럼 돼지가 시판될 수 있는 무게만큼 자라고 도살장으로 직행하는 그 기간에 복지 문제들이 더 튀어나올 수 있다. 하지만 돼지의 특이점은 높은 지능인데, 돼지의 자연스러운 삶에서 훨씬 복합적으로 해석된다. 인간처럼 야생의 젊은 돼지들은 성년기를 준비하는 데 오랜 발달 과정을 겪는다. 새끼 돼지도 젖떼기 전에 보통 어미와 약 3개월을 시간을 보내고 보통 어미와 형제, 다른 가까운 동족

들과 함께 유대감이 깊은 집단에 속한 채로 1년을 산다. 성체인 돼지는 활동적이고 사회적이며 호기심이 많고 더 넓은 위계질서가 있는 집단들로 이동하고 먹이를 구하려고 습관적 흩 뒤지기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양돈업계가 하는 돼지 사육법에 특정한 우려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3달이 아닌 3주 차에 어미와 분리되어 일찍 젖떼기를 한 새끼 돼지들은 매우 높은 공격성을 보이고 소화력 문제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서 돼지들의 발달상의 문제가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양육하는 헛간은 척박하고 우리는 철제 바닥으로 이뤄져 있어서 돼지들에게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돼지의 관심을 사로잡을 적절한 환경적 풍족함이 없으면 돼지는 지루해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며 축사가 가득 차 있으면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암돼지는 특히나 인지력 부족이 있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알듯이 특히 임신과 출산 기간에 주로 자신의 몸집보다 조금 더 큰 우리에 갇혀있다.

육계 생산과 같이 양돈업계 또한 근로자에 대한 공정성, 환경적 영향과 공공 보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양돈업계 근로자들도 가혹한 업무 조건을 똑같이 겪고 있다. 많은 양의 돼지 배설물 또한 환경적 위험의 심각한 요소이다. 혐기성 균으로 분뇨를 분해하기 위해 석호에 저장해두는데, 엄청난 냄새를 만들어 내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와 같은 유독가스를 방출하고 천식과 같이 지역 보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나 홍수 발생 가능 지역에서 기상 악화가 심각할 때 석호에서 엄청난 양의 분뇨가 공공 수로를 통해 보내질 위험도 있다. 양돈업은 마찬가지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을 만든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발병했던 “돼지 콜레라”는 발병 첫해에 15만 명의 사람들을 사망케 했고 선모충과 항생제 내성세균과 같은 치명적인 다른 질병들 또한 양돈업과 관계가 있었다.

앞서 닭에 대한 논의처럼, 이 짧은 페이지로는 돼지 사육법에 대한 반대를 불식시키지는 못하지만, 동물복지와 근로자 공정성, 환경 영향, 생물보안에 대한 넓은 범위의 우려를 조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육 담당자와 돼지고기 생산자들은 문제를 완화 시키기 위해 많은 단계를 거쳤지만,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완전히 종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3. 소고기

최근 몇십 년 동안 가금류와 양돈 생산은 동물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흘러왔고, 닭과 돼지들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인공적으로 조성된 분비는 환경에서 길러졌다. 육우 산업은 이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일반적인 육우는 야외 목초지에 태어나서, 처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은 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젖을 땔 즈음에는 송아지의 무게는 181kg에서 317kg까지 나간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젖을 땨 후 특정 사업 운영 모델에 따라 달려있다. 송아지들은 경매에서 “매입업자” 혹은 “축산업자”에게 낙찰되어 방목지로 옮겨진다. 나머지 송아지들은 태어난 농장에서 몇 달 더 지내게 된다. 그리고 남아 있는 송아지들은 도축용 사육장으로 보내져서 시장에 판매된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육우는 마지막 몇 달을 사육장에서 보내지고(옥수수수와 같은) 곡물을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풍부한 마블링을 만들어 낸다. 사육장의 크기는 다양한데, 한꺼번에 1,000 마리 혹은 그 이하의 마릿수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사육장이 95%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5% 해당하는 사육장은 1,000마리 이상의 소를 수용하고 매년 사육장의 80%에 해당하는 소들을 다룬다. 40%는 32,000 마리 혹은 그 이상의 수용력을 가진 엄청나게 큰 사육장으로 이동한다.

사육장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내고 나면, 소는 590kg 이상 무게가 나가고 트럭에 실려서 도축장으로 이동된다. 도축장에 도착한 후 소는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다(다시 말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서 소는 도축장으로 향하는 활로를 걸어간다. 도축은 압력 가스를 사용한 가축 총을 이용해서 쏘면 소의 뇌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것은 “포획용” 총인데, 봉이 총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회수되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소가 죽으면 매달아 놓아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갈라서 반으로 나눠서 냉동시킨 후 조각으로 잘라 판매된다.

앞에 언급한 닭과 돼지처럼 복지 문제 또한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소에게 스트레스와 부상을 초래하거나 도축 중에 일어나는

사고들은 심각한 고통을 안길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자유방임 방식인 일반적인 목축업 관행 때문에, 사육 초반의 소수 방식과 사육장에서의 마지막 몇 달에만 육우 사육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새끼돼지들과 같이 송아지들은 일반적으로 태어난 후 몇 달 동안 여러 고통스러운 절차를 견딘다. 송아지 절도를 막기 위해 보통 낙인을 찍는다. 낙인은 여러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뜨거운 쇠로 찍는 전통적인 방식을 아직 행하고 있다. 또한 날카로운 뿔이 자라는 걸 막기 위해 어린 소들의 뿔 뿌리를 망가뜨린다. 이 또한 뜨거운 쇠를 사용하지만, 외과적으로나 부식 물질을 이용하기도 한다. 수소들이 전투적 성향을 지니고 강해져서 요리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황소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외과적 방식이나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음낭과 고환으로 가는 혈류의 공급을 차단하면서 거세한다(결국엔 쪼그라들어서 떨어진다). 원래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관행에 있지만, 육식 반대론자들은 마취 없이 행하고 있는 많은 미국의 목축업자들에게 특히나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위의 관행들은 더 단호한 비판을 받는데, 특히나 곡물로 이뤄진 먹이는 집중적으로 공격받는다. 소의 소화기관이 목초에 매우 최적화되어있지만, 옥수수과 같이 영양분이 훨씬 풍부한 먹이에는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곡물을 먹은 소들은 소화기관에서 산이 과하게 생성되어서 혈장이 산성화되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진다(이게 바로 일부 생산자와 소비자, 운동가들이 오로지 목초를 먹은 소를 고집하는 이유다).

사육장의 후처리 또한 생산자들이 초래하는 환경적 생물보안 문제에 책임이 있다. 앞서 논의한 닭과 돼지에 대한 논의에서 이어가자면, 소의 거름 규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규정들은 시설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일부 오염을 막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사육장에 많은 소가 집결되어있으면 병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소들이 사육장에 갇혀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더 확실히 세계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의 소화기관은 먹이를 소화할 때 강력한 온실가스의 주범인 다량의 메탄들이 생성되며 분뇨는 아산화질소를 내뿜는다. 소를 사육하고 도축해서 나오는 다른 물질들과 함께 메탄올과 이산화질소 배출 때문에 육우 생산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전체 거의 6%를 차지한다(여기서 이 수치를 보

면, 가축이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4.5%를 차지하며, 이는 자동차의 배출량과 거의 같다. 젓소가 전체 3%를 별도로 차지하는 걸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들이 야외 방목지에서 사육되는 건 다른 환경 문제들로 이어진다. 세계 곳곳에서는 방목되는 소들을 수용하기 위해 방대한 구획의 숲들이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남미에서의 목장 운영은 아마존 삼림의 80%를 파괴했다. 먹이가 되는 곡물을 재배하려면 더 많은 토지가 사용된다. 세계적으로 미개발된 야생 서식지가 점점 부족해져서 사육에 쓰이는 토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4.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서 하는가?

앞서 논의한 내용은 육류산업의 관행을 우려한다고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다. 인도적이고 평등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가축을 기르고 도축한다는 이전 장들의 목표와는 다르게 이번 장에서는 육류산업이 이러한 특성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강력한 이유를 보여준다. 독자들을 위해 대부분의 육류 생산 방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렇게 검토하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한가지 말할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를 예시로 보는 것보다, 논의한 문제점들이 육류 산업에 대한 변별력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육류 업계 종사자들도 대략 알고 있을 것이고, 의류와 전기, 심지어 과일, 채소 생산자들도 알 것이다. 이처럼 육류산업은 사람들이 환경적 영향 혹은 공공 보건 위협을 걱정하는 유일한 영역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문제들에서 육류산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근무지 규정, 환경 정책, 공공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많은 불만족을 반영하는가?

더 나아가 어떤 독자들은 기업들이 인도적이고 평등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생산하는 자격을 얻으려면 어떠한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 모든 회사가 모든 것이 즐거움과 이익만 얻을 수 있게 운영한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모든 업계는 사건, 남용, 형편없는 판단, 결함들에 영향받

기가 쉽다.

육류산업에서 가축을 관리하는 방식은 이러한 모호성이 더해져서 우리의 판단에 문제 제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를 강력하게 제공한다. 육류산업을 사회 문제의 다른 이유와 분리된다고 말한다면, 바로 동물과 업계의 관계처럼 보일 것이다. 근로자 대우와 환경적 영향, 공공 보건 위기에 대해 많은 업계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육류산업은 매년 수십억 마리 동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홀로 하고 있다. 그럼 업계의 사육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준을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을 때 과도한 학대를 문제 삼는다더라도 사육 방법에서 적절히 “인간적인” 건 무엇인가?

조나단 사파한 포어(Jonathan Safran Foer)의 책, ‘동물을 먹는 것’에서 기억에 남는 장을 되짚어 보겠다. 포어는 “자연스럽고 지속적이며 인간적으로 사육한 가축의 고기”를 전문으로 한다는 니만 랜치(Niman Ranch)라는 회사의 운영방식을 살펴본다. 프랭크 니만(Frank Niman)이라는 인물과 그의 운영방식에 대해 알아봤을 때 포어는 자신의 연구에서 언급한 주요 사육방식의 문제를 니만 랜치는 피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하지만 포어는 니만의 일부 불편한 사육 경험에 대해 여전히 불편해한다. “존재하는 사육방식 중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길 수 있을 방식이 행해지고 있을지라도 니만 랜치는 여전히 소들에게 낙인을 찍고 거세하며 뿔도 자른다. 또한 소들이 누리는 “소규모 사육에 소량의 약품 사용, 더 나은 사료와 유지관리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큰 관심”이라는 점이 업계의 표준과 달라도 소들은 여전히 사육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니만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잠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안기는 사고나 잘못된 절차를 때때로 경험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책 내용에서 포어는 프랭크 니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과 존중의 태도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염려 차원에서 여전히 니만 랜치의 제품을 피하는 게 낫다고 결론내렸다.

일부 독자들에게 포어의 입장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일 수 있다. 어쨌든 니만 랜치가 동물에게 가하는 심각한 불편함이 잘못된 행위라기엔 기준 미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생산업자들이 따르기에는 너무 엄격한 기준처럼 보인다. 우선 2장에서 논의했듯이, 동물들이 식용으로 사육된다는 사실이 없었다면 니만 랜치에 있는 동물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들이 대부분의 야생 동물보다 훨씬

나은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요점이다. 우리는 프랭크 니만이 사육하는 동물들에게 무엇이든 다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동물들이 적어도 가치 있는 삶과 자연을 경험하는 것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니만이 동물들에게 불쾌한 일이 전혀 없는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농장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확실히 과한 처사다.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육류 생산이 인도적이라고 평가하려면 업자들이 동물에게 나쁜 짓을 안 한다는 주장 없이 동물복지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표준을 명확히 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실제 가축 사육의 세부 사항을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특정 관행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진 않다. 특히 서로 생각이 상충 되는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거나 자연스러운 행동을 막아서 동물들의 신체 건강이 가장 효과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인간적인 대우”로 관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특정 관행의 영향이 무엇에, 어떠한 세부 사항에 의존하는지 볼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잠재 정보들은 우리를 특정한 결론으로 이끄는 명확한 이익이 있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로 들면 육류산업과 주류 수의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표준 산업 관행을 따르는 생산업자들의 마음에 공감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육류 반대론자들은 전문가들의 행동에 종종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양극화된 환경에서 “객관적인” 전망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무지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들은 특히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해를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무고한 것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묘사해서 사악하게 들리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교정기를 생각해 보라. 전 세계적으로 치과교정 의사는 미용 목적을 위해 피부를 찢어지게 하는 와이어와 눈에 띄는 금속 브래킷을 어린아이들의 입속에 밀어 넣고 이를 새로운 위치로 뒤틀어서 놓는다. 아이들은 수년 동안 이러한 고문을 견뎌야 하며, 뺨에 구멍이 나고 입술이 잘리며 어떤 경우에는 브래킷 밑부분에 심한 충치가

생기기도 한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치아교정을 큰 윤리적 문제로 여기지 않아도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문제처럼 들리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교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과장된 설명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조사관”을 추궁해서 “공포”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냥하게 괴물 같은 관행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명의 군 상사가 테러 음모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상사는 자신의 분대를 이끌어 무고한 민간인이 있는 마을을 침공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고문한다. 상사와 그의 팀은 명목상 시민들로부터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하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도 놀라지 않는다. 분명히 이 군인들은 잔인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상사가 어떠한 잘못도 밝히지 않은 채 벌어진 일을 자세하게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보라.

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화된 심문 기술을 사용하여 테러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추궁하도록 명령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팀은 몇 명의 적대적인 전투원과 교전한 후 처리했으며,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결국 우리는 확고한 단서가 발견되기 전에 임무를 종료해야 했다.

이러한 요약은 사건의 끔찍한 모습을 불명료하게 만들어서 상황에 대한 기존 설명의 세부 사항을 많이 반영한다. 언어의 왜곡된 힘은 정보를 수집할 때 다른 방식에서도 비슷하다. 끔찍하거나 온화하게 들리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다양한 윤리적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진과 심지어 비디오를 캡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골적인 거짓말을 피할 때에도 개인적인 평가를 선택하고 조작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육류산업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 우리의 평가 능력에 대한 신뢰를 경계하게 한다(실제로 이 장을 읽으면서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개요를 성공적으로 제공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한편으로 농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악행을 포장하거나 진실에서 눈이 멀어지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다. 한편

으로 농장 동물들이 받는 나쁜 대우를 과장하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 때문에 광란에 빠질까 봐 걱정할 수도 있다. 우리가 무지와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어떤 기준이 보장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미국과 해외의 여러 조직이 인도적인 동물 치료 분야에서 전문 평가자의 역할을 채우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노력을 일부 본다면, 육류 생산업체가 수의학 전문가 및 정부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다른 이들은 비영리 부문 내에서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의 결론을 살펴보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준을 "완벽함"보다는 훨씬 낮게 설정하더라도, 업계가 수용하고자 하는 윤리적 방식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5. 업계 기준

모든 주요 육류 생산업체들은 동물을 보살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장을 통해 봤듯이 반대론자들이 업계 관행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소비자와 운동가가 업계를 철저히 검토하면서 업체 우두머리들은 생산자들이 한 판단으로 확실한 벤치마크를 만들려고 수의사들과 규제자들과 협업했다. 이 벤치마크들은 종류와 시장 분류로 다양하지만, 오늘날엔 양계업자들을 위한 전국 가금협회(National Chicken Council) 기준이 있고 양돈업자들을 위한 일반 양돈 산업 감사(Common Swine Industry Audits)가 있으며 육우 생산업자들을 위한 소고기 품질보증(Beef Quality Assurance) 기준이 있고 도살장을 위한 북미 육류 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기준이 있다.

이 기준들은 농가 운영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자들은 기준 운영 절차뿐 아니라 동물의 안락사 필요성이나 정전,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동물 관리자들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예방접종, 안락사, 운송을 위한 포획 및 적재와 같은 전문 작업에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농장 운영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동물 건강 문제,

약물 치료, 치료 및 사망물에 대한 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실내 시설은 적합한 재료로 지어져야 하며 적절한 음식, 물, 공간, 환기 및 습기 조절을 제공해야 한다. 농부들이 포획, 적재, 운송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동물을 적절하게 다루고, 기절시키고, 도축하는 도축장에 대한 추가 지침이 있다.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려고 많은 기업들, 특히 가금 및 양돈 산업 기업들은 전문 동물 감사자인 PAACO(Professional Animal Auditor Certification Organization)에서 별도로 감사를 받는다. PAACO는 국가 수의학 및 동물 과학 단체 연합이 육류산업 전반에 공식화되는 새로운 표준을 시행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PAACO의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미국 조류 병리학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s of Avian Pathologists), 육우 관련 실무자, 양돈 수의사, 미국 유제품 및 육류 과학 협회(American Dairy and Meat Science Associations), 미국 전문 동물 과학자 등록소(American Registry of Professional Animal Scientists), 미국 동물과학회(American Society of Animal Science), 가금류 과학 협회(Poultry Science Association) 등 8개 조직이 있다. 실제로 이 조직의 이사들은 공립대학이나 육류산업 자체의 기업에서 선출된다.

PAACO는 감사자를 교육하고 인증하지만, 주요 기능은 육류산업의 표준을 비판하거나 변경하기보다는 시행하는 것이다. 업계의 벤치마크는 규제 기관과 수의학 및 동물 과학 전문가가 협력해서 정해지지만, 육류 생산업체가 운영할 때 사용되는 표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육류 생산업체 대부분이 감사를 받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PAACO의 감사를 통해 실제로 동물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게 확인되는가? 업계 표준이 동물복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모두 다루고 있는가? 그들은 적절하게 요구사항을 제시하는가? 그들은 동물을 희생해서 기업에 이익을 주는 관행을 엄격한 태도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육류 업계는 모든 측면에서 회원들이 적절하다고 보는 행동을 단순히 "인도적" 대우라고 했는가?

업계의 자체 모니터링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PAACO의 감사 절차가 시설에 "불합격"을 주지 않고 특정 벤치마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여지를 많이 남겨둔다는 사실로 인해서이다. 예를 들어, PAACO는 전국 가금 협회의 동물복지 감사 대조표를 사용해서 많은 가금류 운영방식을 평가한다. 이

점검표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최대 1,730점을 부여하지만 통과하려면 1,510점만 필요로 한다(약 87%). 이렇게 재량을 부려서 병아리를 위한 장비가 손상되었다고 보고되어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20점 감점), 병아리 운송에 차량이 부족하더라도 회사가 감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온도 조절 능력(10점 감점), 사육장 바닥이 딱딱하고 젖은 쓰레기로 가득 찼으며(40점 감점) 경고 이후에도 병아리 12마리 중 한 마리는 걸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든지(20점 감점) 전체 닭 중에서 10% 이상이 발바닥 부위의 절반 이상이 염증이 나 딱지가 있고(20점 감점), 25마리 중 한 마리는 기절하기 전에 날개가 부러지거나 탈구된 경험이 있었다든지(20점 감점), 닭 50마리 중 한 마리가 의식을 잃지 않고 장치를 통과했다(20점 감점).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은 PAACO 감사에 합격하고도 전국 가금 협회의 표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육류산업의 일부 분야에서는 PAACO에 처음부터 농업 운영을 “합격” 또는 “불합격”을 요구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반 양돈 산업 감사에서는 양돈 생산업체의 고의적인 확대와 방치 및 비인도적인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평가하는데 그 이상으로 “합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전반적인 성과를 명시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업계 내 다른 시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설의 성능을 평가한다. 허용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 벤치마크를 정의하는 대신, 감사에서는 채점 기준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것에 자체적으로 표준을 정하고 포장업체 및 기타 시장 업자들을 채점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육류산업이 자체적으로 부과한 표준이 부적절한 대우와 학대에 대한 주요 방어선을 당연히 제공하지만, 업계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명백한 약점이 된다는 걸 보여준다. 업계가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을 확인했어도, 업계가 엄격히 시행해야 할 이 기준을 거부하는 점은 우려할만하다. 하지만 애초에 업계 표준이 정당한지도 불분명하다. 최소한 업계 운영을 판단하는 데 어떤 표준이 적절한지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통찰력의 원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독립된 자격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인도적으로 동물을 대우하기 위한 자체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육류산업의 기준을 강화했다. 이러한 기관에는 미국 인도주의 협회(American Humane), 인도주의 농장 가축 돌봄 협회(Humane Farm Animal Care), 그리너 월드(A Greener World) 및 미국 GAP(Global Animal Partnership)이 포함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들의 기준은 업계에서 정한 것과 함께한다. 예를 들어, 엄격한 계획과 정보 수집이 인도적으로 동물을 대우하는 방법의 핵심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이들 기준에서는 농장이 동물의 건강과 영양, 비상 상황(특히 물이나 전기가 차단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증을 요구한다. 생산자는 절차와 동물의 행동에 대한 많은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개선 조치와 동물을 다루는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기준과 달리 기관들은 "인도적" 인증을 받는 걸 피하려고 특정한 일반적 관행을 구분해낸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양돈 생산자들은 돼지가 흙 뒤지기를 하는 것을 때로는 막고 싶어 한다(목초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돼지의 코를 꿰고 고리를 장착해서 이 행위를 막으려고 한다. 코걸이는 돼지가 흙을 뒤지는 걸 불편하게 만들어서 흙 뒤지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양돈 산업 감사에서는 돼지주둥이에 의도적으로 코걸이를 해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유일하게 허용한다. 하지만 돼지의 주둥이는 신체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걸이는 심각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흙 뒤지기는 돼지가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일이라서 이를 막으면 돼지의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 능력을 크게 제한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독립된 인증기관에서는 코걸이를 비인도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코걸이는 독립된 인증기관들이 확실히 거부하는 일반적인 관행의 예시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관들이 특정한 관행을 허용하면서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 자체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작업자가 닭을 운송하려고 포획할 때 운송 수단별 이동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운반하고, 닭의 다리를 거꾸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 가금 협회의 지침에 따르면 지정 무게가 닭 한 마리당 2.3kg을 초과하는 닭장에서는 작업자가

한 손에 최대 5마리를 운반할 수 있다(작은 닭은 한 손에 10마리씩 운반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된 인증기관들은 이 많은 닭을 한 번에 운반하면 닭들을 너무 위협하게 만들고 인증 농장에는 제약이 크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독립 동물복지 기관들이 합의한 제시한 특정한 표준이 인도적 대우를 위한 진정한 요구 사항을 찾는다는 증거를 제공한다(요구 사항은 업계에 부과하는 기준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인도적으로 사육된 닭과 돼지에게 야외 공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완전히 실내에서 사육해도 되는지 생각해보라. 소비자 리포트가 시행한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중 78%는 동물이 적어도 어느 정도 밖에서 살았을 때만 제품에 "인도적으로 사육됨"이라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독립 동물복지 들은 사이에서는 이것이 과연 요구 사항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유명한 복지 라벨링 기관인 미국 인도주의 협회와 인도주의 농장 가축 돌봄 협회는 생산자들이 닭이나 돼지에게 야외활동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실내 사육이 인도적인 자격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너 월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모든 동물이 야외에서 쉽게 활동할 수 있게 라벨을 요구하고, 심지어 공간 배치법에 엄격한 지침을 부여하기까지 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GAP가 동물복지 인증 라벨에 여러 가지 수준("단계"라고 함)을 제공해서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실내 사육이 허용되지만 3단계 이상에서는 허용 되지 않는다.

독립 평가자들 사이의 이견은 더욱 세분화 된 형태로 발생한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양계 농가에서는 닭이 인공조명에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닭이 더 많이 먹고 더 빨리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빠른 성장은 생산자에게 더 높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닭이 너무 빨리 자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어서 동물복지 측면에서 보면 잠재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적 생산 차원에서 상식적인 요구 사항은 모든 닭에게 어둠 속에서 적절한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답변은 매우 다양하다. 전국 가금 협회에서는 하루에 최소 4시간의 어둠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며, 1시간, 2시간 또는 4시간 단위로 나눌 수 있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는 좀 더 엄격하게 하루에 4시간 연속 어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자연광으로 인해 불가능하지 않은 한). 인도주의 농장 가축 돌봄 협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루 연속 6시간을 요구하며, 그리너 월드는 더욱더 나아가서 연속 8시간을 요구한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 GAP는 다양한 수준을 제시하는데 1~2단계에는 6시간, 3단계 이상에는 8시간이 소요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닭들은 사육장에서 도축장으로 이동되며 포획, 운송, 가공되는 동안 먹이 공급은 차단된다. 분명히 오랫동안 닭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하지만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는 얼마나 긴 건가? 국립 가금 협회는 먹이 없이 허용되는 최대 시간을 18시간으로 설정한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는 16시간으로 설정하고, 미국 GAP과 인도주의 농장 가축 돌봄 협회는 12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너 월드에서는 닭을 밤에 포획하고 아침에 도축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독립 동물복지 인증은 "인도적" 사육을 위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놀랍지 않게도,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들은 라벨링 하는 기관들과 거기에 협력하는 기업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찾아낸다. 예를 들어, 그리너 월드는 자사의 엄격한 기준이 "농장 대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입증됐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관은 실제로 농산물 시장이나 농장과 직거래하는 레스토랑에서 높은 비용을 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생산자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대로 미국 인도주의 협회는 미국 최대 규모의 육류 생산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곳의 인증 라벨은 버터볼(Butterball), 케이스 팜스 치킨(Case Farms Chicken)과 포스터 팜스(Foster Farms)와 같은 주류 슈퍼마켓 브랜드에서 사용된다. 인도주의 농장 동물 돌봄 협회의 인도주의 인증 라벨은 요구 사항과 인증하는 업체에 따라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통해 미국 GAP의 동물복지 인증 프로그램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독립 평가자와 육류산업 간의 이러한 다른 관계는 실제로 필요한 "인도적" 대우를 결정할 때, 어떤 평가가 가장 신뢰성 있는지와 같은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한편으로는 일부 기관이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도적인 기준보다 훨씬 낮은 기준을 채택했다는 점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인증업체들이 가능한 한 많은 동물에게 인증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런데도 해당 독립된 인증기관의 라벨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회사가 인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의미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우려하는 건, 다른 기관들이 운동가, 이념가, 완고한 소비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도덕성이 요구하는 것보다, 가장 까다로운 인증기관들이 보장하는 동물을 대우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 책에서 동물이 언제 인도적인 대우받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다. 대신, 세 가지 주요한 관찰에 만족할 것이다. 첫째, 모든 관점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비영리 독립 인증기관들은 업계 스스로가 적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에 집중했다. 기관이 일반적인 업계 기준을 뛰어넘지 않으면 별도의 벤치마크를 설계하고 발표하는 일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관들이 많은 주류 관행을 없애고 다른 관행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동물 문제를 제대로 나타내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제공한다.

둘째, PAACO와 같은 기관의 관행과는 현저히 다르게 독립 동물복지 인증기관은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영리 단체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는 모든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특정 규칙에 대해 특별히 면제를 청원하거나). 단순히 대부분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인도적"이라는 인증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여기서 큰 예외 사항은 미국 인도주의 협회 인증 라벨이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는 육계 생산 운영에 대해 100% 규정 준수를 요구하지만, 122개의 양돈 및 육우 생산업체는 조직 감사에서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라벨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대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서 독립 비영리 기준을 매우 관대하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대다수 대기업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적어도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최대 육계 생산업체(타이슨 푸드, Tyson Foods)는 2020년에 약 20억 마리의 닭을 사육 및 도축했다. 두 번째로 큰 생산업체(필그림스 프라이드, Pilgrim's Pride)는 약 16억 마리 더 도축 했다. 상위 5위 안에 드는 회사(코치 푸드, 샌더슨 팜스, 퍼듀 푸드 Koch Foods, Sanderson Farms, Perdue Foods)는

약 20억 마리의 닭을 사육했다. 그 중 퍼듀만이 PAACO 말고 다른 기관과 육계 운영을 인증한다(퍼듀는 미국 GAP와 협력하여 2단계부터 4단계 수준에서 유기농 닭을 인증하고 PAACO를 고용하여 나머지 운영에 대해 전국 가금 협회에서 개발한 것보다 더 엄격한 표준을 구현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양돈 산업의 선두주자인 스미스필드 푸드(Smithfield Foods)는 독립 비영리 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았다. 육우 업계 시장을 선도하는 타이스은 미국 GAP의 1단계 인증을 획득한 오픈 프래리 내추럴 미트(Open Prairie Natural Meats)라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대부분은 업계 관련 감사관에 의해서만 감시되며 카질(Cargill), JBS 및 내셔널 비프(National Beef)와 같은 곳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슈퍼마켓 진열대와 레스토랑 메뉴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고기가 인도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더욱이 나 독립 비영리 인증기관의 가장 관대한 표준을 따르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육류산업이 스스로 부여한 기준은 동물이 진정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줄만큼 엄격하지 않으며 그렇게 시행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동물이 업체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기는 거의 어렵다. 2020년 미국에서만 소 3,510만 마리, 돼지 1억 3,940만 마리, 닭 92억 5천만 마리를 사육한 업계에서 이러한 결점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윤리적 문제를 만든다.

7. 현실이 문제다

우리가 소비하는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육류는 근로자의 가혹한 환경,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 등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육류산업은 동물을 보호할 적절한 장치가 없으면 동물들이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이 다른 문제 원인과 구별된다. 상대적으로 "인도적"이라고 보는 관대한 기준에서 미국 최대 육류 생산업체 중 어느 곳도 이 등급에 부합하는지는 확신이 없다. 형평성, 지속성, 공중 보건에 대한 수많은 불만과 더불어 부족한 점도 고려해보면 실제로 육류 생산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결

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

이전 장에서 나는 고기가 인도적이고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된다면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산되지 않은 고기는 어떤가? 동물과 근로자, 환경 및 공중 보건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고기는 먹어도 되는가? 이게 바로 내가 다음 장에서 다룰 질문이다.

4장 차이를 만들다

나는 모든 동물이 인도적이고 공평하고 계속 안전하게 사육된다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 장에서 봤듯이 대부분 고기는 그렇게 철저한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제품은 동물과 근로자, 환경 및 공중 보건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채식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윤리적으로 명확한 이치를 깨닫게 해준다고 본다. 바로 업계가 함께 행동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소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양심적인 잡식주의자가 될 수 있더라도 채식주의자들은 대부분의 고기가 생산되는 방식을 보면 육식은 사실상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의 목표는 다음 세 장에 걸쳐 왜 이러한 견해가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문제가 육류산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더라도, 육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심지어 논의된 문제의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의견을 지지하려면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육류산업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떤 주장에서는 우리의 먹거리 선택이 육류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주장에서는 잘못된 운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또 다른 주장에서는 육류산업의 잘못에도 여전히 육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고수하며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한꺼번에 반박하다가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서 앞으로 나올 장에서 각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이 장에서 살펴볼 주장은 인간이 육식을 하면 동물 학대, 근로자 착취, 환경 파괴, 공중 보건 위협과 같은 우리가 논의 했던 문제들을 심화시킨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반면에 사람들이 육식을 멈추면 문제가 완화된다고 본다. 문제가 해결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육식이 잘못되었고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채식주의를 지지하려고 만든 전략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채식주의의 사례가 인과적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아야 하는 구체적인 윤리적 의무를 찾지 못할 것이다. 채식주의에 대한 여러 다른 주장이 있기 때문에, 위의 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육식을 해도 된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특히나 채식주의가 가진 직관적이고 대중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기에 자신들의 의견을 입증하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1. 인간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육류산업은 단지 재미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경을 훼손하고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경우이지만 이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게다가 이렇게 반대가 심한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면 육류산업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육식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노동자를 착취하며 환경을 악화시키고 공중 보건을 위협에 빠뜨리게 한다는 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 육류산업은 모든 나쁜 일들을 일으키며 변명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1장에서 언급했던 가능성 있던 몇 가지 변명을 떠올려보라. 그 중 어느 것도 설득력은 없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는 육식을 피해야 한다는 분명한 근거인 것처럼 보인다. 설득력이 있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육식이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 내면, 소비자가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채식주의자가 어떤 끔찍한 일을 일으키는지 설명해야 할 때는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 직관적으로 누군가가 고기 한 조각을 먹으면 육류 생산이 만들어 내는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슈퍼마켓

에서 돼지갈비 한 봉지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돼지갈비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돼지로 만들어졌다. 돼지는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이 키웠다. 육류업체는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불완전한 방역법으로 공중 보건을 위협했다. 내가 돼지갈비를 먹어서 이러한 나쁜 일들을 일으켰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아니면, 어쨌든 내가 일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대받는 돼지, 근로자 착취,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위협이 내가 먹은 돼지갈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도 책임을 공유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비용 문제가 연관될 수 있는 소비자의 책임 분배 문제는 일단 제쳐둬도 된다)

육식주의자의 구매와 업계 행동 간의 인과 관계를 묘사는 매우 간단하지만 일의 발생 순서를 거꾸로 만드는 단점이 있다. 돼지의 고통, 노동자 착취, 환경오염, 공중 보건 위협 등은 돼지갈비를 구매하기 전부터 이미 많이 있었다.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찍이 계획을 실행했다. 게다가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시작됐다. 돼지갈비는 내가 요청해서 "주문 제작"된 게 아니다. 돼지갈비 생산업체는 향후 몇 달, 몇 년 동안 시장 상황을 예측해서 생산했다. 내가 돼지갈비를 샀을 때쯤에는 이 결정이 영향을 미칠 기회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학대받는 돼지, 착취당하는 노동자, 오염된 환경, 공중 보건 위협은 분명히 돼지갈비를 먹기로 한 나의 최종 결정과 연결되어 있다(이 점은 6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한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후자가 전자를 발생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실수다. 내가 돼지갈비를 먹기로 한 결정이 어떤 일을 일으킨다고 하려면 그 일은 내가 참여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 돼지갈비에 동물 학대, 노동자 착취, 환경파괴 또는 공중 보건 위협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일은 모두 내가 개입하기 전에 일어났다.

하지만 오류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아마도 돼지갈비를 사 먹은 행위가 육류산업이 향후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행위가 돼지갈비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생산량이 늘어나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주장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오늘날 돼지갈비를 구매해서 결국에는 추가 돼지갈비(또는 기타 육류 제품)가 생산된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돼지

갈비를 먹기로 한 내 결정이 육류산업의 향후 행동에 예상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즉 내 결정과 상관없이 업계가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 주장은 실패한 것이다. 고기를 먹기로 한 내 결정은 업계가 만드는 문제에 아무런 인과 관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고기 한 조각을 먹기로 한 결정이 미래에 추가 고기 생산으로 이어지는지 예상해야 하는 게 문제다. 다음에서 나는 대답을 '아니오'라고 주장하겠다. 사람이 일반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사고 먹을 때 육류업체가 더 많은 동물을 학대하고, 근로자를 착취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인이 식단을 결정해서 업계가 행동하도록(또는 하지 않도록) 하는 건 전혀 아니다. 우리는 개별 육식주의자가 육류산업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비효과 이론(즉, 개인인 육식주의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비효과 이론에 대한 논제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다. 불과 몇 페이지 전에는 육식주의자들이 고기를 사 먹기 때문에 육류산업이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이 고기를 구매할 때 업계가 추가로 고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을까? 답을 얻으려면 먼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부터 설명하는 게 도움 될 것이다.

2. 어떻게 효과가 없을 수 있을까?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고 지역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불행하게도 나는 소음에 민감해서 사람들이 내 귀에 대고 몇 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는 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경기에 갈 때 소음 방지 물품을 가져갈 계획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소음을 차단하면 제대로 경기를 경험하지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팀의 초반 경기를 TV로 시청해서 경기장이 실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보고, 해당 소음 수준에 적합한 귀마개를 선택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나는 경기장에서 관중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려고 주기적으로 점보트론에 데시벨 미터를 표시한다는 걸 알고 있다(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이유는 팬들이

더 큰 소리를 지르게 하기 위해서지만, 그건 제쳐두겠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 측정기가 정확하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TV에 데시벨 측정기를 설치했고 보정을 해서 경기장에서 측정한 데시벨이 집에서 측정한 데시벨과 어떻게 같은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면 나는 경기장의 소음을 견딜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을 내가 시정하고 있는 축구 경기에 참석하는 팬이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응원하면 경기장의 소음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음은 방송사의 마이크에 포착되어 내 TV로 전송되고 내 데시벨 미터로 측정되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분명히, 당신과 같은 관람객의 행동에 따라 경기에 가져갈 귀마개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비명을 지르거나 참는다고 해서 내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인가?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우선, 당신의 결정에 대한 영향을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경기장의 마이크는 팬 한 명의 응원 소리에 따른 소음 수준의 차이를 기록할 만큼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차이를 기록하더라도 TV 방송국은 해당 내용을 충실하지 않게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 정보가 내 TV에 도달하더라도 내 스피커가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재현할 만큼 잘 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스피커가 다른 소리를 내더라도 내 데시벨 측정기가 차이를 표시할 만큼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데시벨 측정기가 당신이 경기장의 소음 수준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더라도 여전히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아마도 나는 경기장 소음의 작은 순간적 변화 때문에 경기에 가져올 귀마개를 고르진 않을 것이다. 대신 경기의 일반적인 소음 수준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실제로, 경기 당일 특정 팬이 비명을 지르는 것에 따라 내 선택이 적절한지 본다면 특정 소음 방지 물품을 선택하는 건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경기장에서의 팬 한 명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예시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가 사실이다. 첫째, 경기에 어떤 소음 방지 물품을 가져갈지는 경기장의 응원 소리 수준에 달려있다(만약 모두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면 귀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내가 가져오는 물건은 사

람들이 내는 소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둘째, 한 명의 팬이 비명을 지른다고 내 행동을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실, 이 특별한 예에서는 팬이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사실상 확실하다.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고려해보면, 이 사례에서 비효과 이론에 대한 논제는 매우 타당해 보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한 의견이 왜 비효과에 대한 논제가 육식의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터무니없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유사한 요인이 실제로 육류 시장에서 작용한다는 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후자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경기장 사례를 다시 살펴서 기본 사항이 육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경기장 사례에는 팬의 행동이 효과가 없다는 두 가지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첫째, 경기장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팬의 행동을 전달하는 신호가 마이크에 포착되지 않거나, TV에 방송되지 않거나, TV 스피커로 재생되지 않거나, 데시벨 측정기로 포착되지 않아 손실될 수 있다. 둘째, 팬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더라도 결정을 바꾸지 못할 수 있다. 좋은 나쁜 육류 시장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모두 존재한다.

3. 공급망으로 의견 전달

소비자가 육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가 돼지갈비 한 팩을 살지를 결정한다고 가정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돼지갈비 한 봉지가 슈퍼마켓에 팔리게 되고, 두부볶음을 대신 선택하면 내 돼지갈비가 진열대에 남게 된다. 직감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결과의 차이가 슈퍼마켓의 진열 방식에 적용되어 후자보다 전자에서 더 많은 돼지갈비를 주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생산자는 더 많은 돼지갈비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 식료품점에서 특정 제품의 수요가 변동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사람들 대부분은 매주 같은 음식을 먹지 않기에 식료품점을 방문할 때마다 구매할 제품들은 다양하다. 더욱이 고

객은 직접 쇼핑하고 가는데, 이번 주에 한 상점에서 구매한 사람은 다음 주에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식료품점이 할 일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계적 규칙으로 시야를 넓게 보고 고객이 충분히 만족하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재고가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수량을 확보해야 할지 묻는 게 임무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려면 식료품점에서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사항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편, 육류와 같이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빨리 상한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비축하는 슈퍼마켓은 폐기물로 인해 손해를 본다. 반면에 제품이 부족해도 비용이 많이 든다. 고객이 돼지갈비를 사러 왔는데 팔 수 있는 것이 없거나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면 이는 판매 손실과 수익 감소를 의미할 수 있다(고객이 대신 다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한). 게다가,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객은 앞으로 다른 상점에서 쇼핑하기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여분의 제품을 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이 있다. 실제로 식료품점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상되는 낭비"를 위해 균형 조정 작업을 행한다.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매입한 고기의 5%는 결국 버려진다.

슈퍼마켓에서는 매입한 고기 일부를 낭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판매가 부진한 고기를 부패시키는 것 외에도 처리할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 유통 기한이 임박한 돼지갈비 한 팩을 본 식료품점은 "세일" 또는 "정리" 스티커를 붙여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할인이 없었다면 이들은 더 신선한 고기를 샀을 수도 있고 고기를 전혀 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말 판매가 부진한 품목도 식료품점에서는 세일이나 특별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간 광고지에 실을 수 있다. 대안으로 식료품점에서 고기를 요리해서 준비된 상자에 담아 판매할 수도 있다(이것이 바로 전기구이 치킨, 돼지등갈비구이, 쇠고기와 보리 수프가 등장하는 이유이다). 어떤 식으로든 현명한 식료품점은 고객이 구매할 수 있게 더 노력하여 부패되는 식품을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부패한 제품은 버리고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할 것이다.

식료품점에서는 수요 변동을 예상하고 재고를 많이 두면서 얻는 이익이 있다. 판매되지 않은 고기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있고 당연히 일부는 폐기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식료품점은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데, 바로 고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결정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부볶음 대신 돼지갈비를 선택하거나 돼지갈비 대신 두부볶음을 선택하는 고객의 결정은 이미 식료품점이 오후에 한 예상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식료품점은 고객의 선택과 상관없이 같은 방법으로 고기를 계속 주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먹든지 간에 소비자의 결정은 영향이 없다. 공급망을 통해 생산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의 작업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

음식점에서 고기를 주문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일주일 동안 판매할 일정량의 고기를 주문할 때 개별 메뉴의 수요가 변한다는 기본적인 예측을 하고 재료 낭비와 재료 부족 사이에서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재료가 남아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의 특선" 또는 "오늘의 수프" 형태로 판매율을 높이려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수단으로는 사용 불가능한 재료는 폐기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업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도 육류 가공업체에 직접 고기를 주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대신 생산자와 소매업체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제3의 육류 유통업체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슈퍼마켓이나 식당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통업체도 변화하는 시장에서 운영되며,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주문하는 고기의 양을 바꾸는 것은 가장 최상위의 공급망에 도달하기 전에 여전히 배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공급망의 최상위에 도달하더라도 실제로 결정권자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차이가 일부 회사의 판매 데이터 어딘가에 기록되는 것은 엄밀한 사실이지만, 연간 수익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들은 소비자 구매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 수백만 돼지, 수백만 파운드 등 수치를 기록한다. 아마도 하나의 슈퍼마켓이나 식당 주문의 작은 변화는 회사 성과의 수치를 변화시키더라도 회사 직원이 보기도 전에 컴퓨터 이미 반올림할 것이다.

4. 변화를 위한 대응

소비자가 특정 고기를 구매하기로 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이러한 선택에 대한 정보가 공급망을 통해 육류 업계 결정권자에게 전달될지 의심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드문 경우지만, 돼지갈비 대신 두부볶음을 먹기로 하면 스미스필드 푸드와 같은 회사에서는 더 적은 양을 주문하고 이 변화가 매출 수치에서 작은 변화로 나타나 결정권자의 의사에 반영될 수 있다. 특히 낙관적인 예를 들면, 변화로 인해 신선한 돼지고기의 총판매량은 53억 9,740만 달러가 아닌 53억 9,730만 달러로 보고가 되거나, 돼지 판매가격의 평균은 100파운드당 61.48달러가 아닌 61.47달러로 보고되어 특정 수치가 반올림 임계치를 넘어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육류 생산업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전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육류 생산업체가 변화가 빈번한 시장에서도 운영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연도에는 회사가 판매하는 각 제품의 수요와 다른 회사가 유사 제품에 매기는 가격도 변할 것이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업은 선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재고를 관찰해야 한다. 슈퍼마켓이나 식당과 마찬가지로 판매를 높이기 위해 광고, 특별 상품, 쿠폰 등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심지어 부위별로 제품을 바꿔서 잘 팔리지 않는 고기를 조리식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일반적인 상도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운영 조치로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편에서 보면, 농장을 운영하는 데 육류회사들도 상당한 변동을 마주하고 있다. 동물의 건강과 활동은 결코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농장은 어느 정도의 손실과 열악한 결과를 예상하며 일부 집단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생산자들은 가격과 품질이 다양한 사료에도 의존한다. 예를 들어, 동물 사료는 생산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이며 사료 가격은 특정 연도에 크게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은 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려고 적응하는 방식으

로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두 가격이 상승하면 돼지의 먹이를 옥수수와 같은 다른 곡물들이 많은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산자는 궁극적으로 사료 비용이 변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대비해야 한다. 인건비, 예상치 못한 보수비용, 물, 전기 및 연료 가격 등에 대해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날씨 변화도 특정 농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육류산업의 운영 환경은 생산 결정이 기대 판매량에 맞추는 일은 부득이하게도 부정확하다고 본다. 확실히 기업들은 특정 비용으로 특정 양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특정 시설에서 특정수의 동물을 사육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밝혔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특정 가격으로 특정 영역에서 특정 수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하게 해석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업들은 광범위한 차원 때문에 변하는 상황이 실제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줄 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일반적인 목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보면, 특정 시기에 특정 제품을 적게 주문하는 슈퍼마켓이나 식당이 육류업체의 향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상 대다수의 대답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 업체들은 운영에서 미미한 차이에 순응하기보다는 구매가 다 이뤄졌을 때처럼 착실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들 업체의 결정이 미래의 결과와 관련 있다는 점이 만들었을 수 있다. 현재의 매출 부진으로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조정할 수 있지만, 고객의 구매 패턴이 변해서 생긴 매출의 작은 변화 때문에 회사의 장기 전망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육류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면한 상황이 위의 경기장 예시와 비슷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경기장의 소음 정도에 따라 내가 소음 방지할 수준을 결정했고 이러한 예상은 이전 경기의 소음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하지만 팬들 개개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침묵을 유지한다고 해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우선, 팬 한 사람의 행동이 만드는 신호가 내게 전달되기도 전에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팬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나는 아마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다.

우리는 육류 시장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발견한다. 생산자의 결정은 제품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지만, 단일 소비자가 생산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아마도 개인의 구매 정보는 생산자가 고려하는 공급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영향을 미쳤더라도 생산자들은 향후 생산에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육식할지 선택할 때 비효과 이론이 잘 설명되는 것 같다. 육류산업이 많은 심각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고 육류산업이 그렇게 운영하게끔 소비자들이 주도한다더라도 개인의 육식이 업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미미하다.

5. 활동에 참여하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근로자를 착취하며 환경을 악화시키고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면 육식을 반대하는 주장은 강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은 일이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다. 육식이 육류산업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를 근거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 각 개인의 행동이 육식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채식주의를 지지할 방법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식단을 바꾸는 건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면 확실히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다. 지난 50년 동안 수백만 명이 함께 했다. 전 세계 70%의 사람들이 업계의 운영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육식을 끊었다. 사실, 내가 이 책에서 앞서 말했듯이, 대다수는 일시적으로만 채식주의자로 남아 있다. (한때 채식주의를 실천했다고 보고한 미국인 중 80% 이상이 다시 고기를 먹는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임시 채식주의자조차도 특정 순간에는 생산자에게 고기 구매를 거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인 채식 운동 자체가 육류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고기가 덜 생산된다. 그러나 채식주의자들은 또한 정치적 로비와 항의 및 폭로와 같이 여론을 동원해서 육류 생산 방식을 개

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채식주의자들은 주류 육류 생산 방식의 최악의 면을 알렸고, 많은 육식주의자들도 육류 소비를 줄이고 "인도적"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했으며 식물성 식품을 식단에 더 많이 포함하는 방식으로 육류 업계에 대응했다. 채식주의자들은 레스토랑의 채식 요리부터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대체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육류 식품의 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주로 채식주의자가 되어 육류산업의 운영방식에 반대한 사람들 덕분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채식주의자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집단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기장의 예를 되돌아보면서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천 명의 팬이 함께 침묵하기로 했다면,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아서 개별적으로는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칠 수 없더라도 전체 소음 수준을 상당한 낮출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비효과 이론이 개인 수준에서 육식주의자의 옳은 이론이라고 해도 다수의 소비자가 함께 활동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육류산업의 활동에 단체로 영향을 미치는 채식주의자 능력은 육류 섭취를 기피 하는 이유처럼 보인다. 채식 운동이 동물의 고통, 근로자 착취, 환경파괴, 공중 보건 위험 등의 문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향력이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육식을 포기하는 것과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결정에는 분명히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가치는 한 명의 채식주의자가 가진 영향력의 한계(우리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채식주의자가 중요한 집단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채식의 긍정적인 영향에 참여하는 활동에 뭔가 좋은 점이 있다는 추론은 정확하다. 하지만 이것이 육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는다. 채식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상의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인권을 옹호하고 세계 빈곤을 완화하고, 의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속되는 불의와 정치적 부패, 외면하는 지역사회에 맞서 거리로 나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활동할 기회들은 주변에 많다. 시골에 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푸드뱅크를 하려고 캔을 모으며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참여할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활동해야 할 최소한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윤리적 의무는 아니다.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각자는 행동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치 있는 모든 대의를 이룰 의무는 없다. 중요한 이유를 지지하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채식주의자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대의가 개인들도 이루고자 하는 좋은 것이라는 이유로 주장하기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문제에 맞서 싸우는 운동을 대표해서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그들의 특정 행동주의가 다양한 대안들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도움이 추가로 필요한 다른 운동들보다 채식주의에는 참여를 더 요구하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비유해보면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당신이 어린 자녀와 함께 불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고 상상해보자. 아이는 배가 고파서 결국 울기 시작한다. 식당 주인은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하라고 말한다. 부모로서 당신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식당 주인이 당신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식당에 갈 이유가 있고 그곳에서 식사하는 게 가치 있는 일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식당에서 꼭 식사할 필요는 없다. 자녀를 서둘러 집으로 데려가거나 근처 슈퍼마켓에 가거나 다른 식당에 갈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간식을 챙겨왔을 수도 있다. 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자녀에게 의무를 다하는 방법이지만 많은 선택 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의무가 있다. 더라도 채식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주장이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피해를 완화하는 역할이라면, 채식주의자를 식당 주인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식당 이야기처럼 우리는 채식 운동에 참여해서 이행해야 할 의무(즉, 세계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할 선택지도 많은 듯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종 억압, 인권 침해, 종의 멸종 또는 기타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적어도 변증법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분명히 윤리적인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채식주의를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많은 선택 사항 중 하나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육식을 모든 사람이 피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중요한 대의를 돕는 방법이 아닌 채식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왜 선택해야 하는가?

위에 제시된 추론에서는 채식주의를 세상의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방식은 고기를 피하는 것과 다른 행동주의를 추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육식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대변하는 방법은 그러한 선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고기를 금하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활동과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선택은 채식주의나 다른 활동 참여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오히려 고기를 먹으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 모두 선택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반대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채식주의가 다른 대의를 더 쉽게 지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채식 요리는 대개 가격이 저렴해서 고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절약해서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채식주의와 다른 활동 사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른 대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채식주의를 세계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점들은 현재까지 정확하다. 하지만 이를 고기를 피할 의무로 삼는다는 건

채식주의자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행동주의의 존재를 의미한다. 참고로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에 선택 없이 행동하는 것은 가치 있는 대의에 참여하고 다른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난방하거나 냉방을 중단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독성 오염을 완화하면서 공과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 옷 구매를 멈추고 낡은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의류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 심지어 신선한 과일과 채소도 지하수 고갈, 운송으로 인한 환경오염, 근로자 착취와 같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면 가치 있는 대의에 기여할 수 있고, 적은 양의 식단으로 바꾸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가격이 높은 전분(예: 쌀, 감자, 빵)과 콩과 식물(예: 콩류, 렌틸콩, 말린 완두콩)을 다른 가치 있는 곳에 보낼 수도 있다.

어떤 독자들은 이러한 절제가 유일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 사이의 변증법이 단순히 불필요한 소비를 용납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집에 난방을 하거나 티셔츠를 사거나 비싼 키워 한 상자를 구매하는 일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도 육식이 특별히 잘못되었는지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절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먼저 전하면서, 채식 운동가들이 대의를 위해 필수품 외에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더는 안된다"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이러한 가정은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들이 의해 널리 알려짐).

세상의 문제에 대응해서 사람들이 희생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 이는 진행 방법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한다. 우선, 이 한계에도달하기 전에 여기엔 멀리 가야 하는 정도 대한 질문이 있다. 세상의 문제는 방대하고 심각하다. 문제는 개인의 안락함, 편리함, 즐거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해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작은 문제들에서 우리는 가장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더 큰 문제의 경우, 주로 개인적 참여의 한계로 영향력이 줄어든다거나 평가가 어려운 행동주의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후자가 채식주의의 경우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망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있다. 무엇보다도 시간, 에너지, 인내, 친절, 돈, 소유물, 목소리, 창의성, 지성 등을 통해 도움을 줄 기회가 있다. 이것들을 조금씩 나눠 주는 게 옳은 생각인가? 몇 가지 기여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나은가?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기부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가? 군인이 책임감 없이 한결같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공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직장에서 남다르게 헌신하는 게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와 다른 문제들에 어떤 논거가 필요한지는 중요한 질문 중 가장 우선으로 놓인다. 세상은 관심을 일으키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대의에 넓지만, 발만 담글 정도로 관여되어 있다면, 그중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가치 있는 대의 일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떤 대의를 위해 집중해서 노력하거나 무시할 것인가?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방법은 안락한 의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론가로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도 신중한 성찰과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행동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이 매우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의 수많은 활동과 대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감 있는 채식 운동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특정 대의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며,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대의를 발전시키려고 항상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옳다면,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특정 문제를 특정 방식으로 해결하며 특정 희생을 한다. 이러한 행동주의는 다른 대의명분을 알릴 수 있고 심지어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육식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다양한 행동주의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

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발전하고자 하는 요인, 수단, 비용은 선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육식을 삼가서 채식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도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고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전통을 받아들이고, 식당에서 채식 옵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채식 요리법을 개발하고 홍보하거나, 대체육을 요리에 적용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행동으로 채식주의가 발전시켰던 동일한 대의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더 높은 윤리적 책임 기준을 따르는 생산자를 찾거나, 농장 동물복지 단체에 기부하거나, 동물, 근로자, 환경 및 공중 보건을 지지하는 정치 후보자의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채식 운동가가 다른 대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문제에 대해 야심 찬 활동을 적절히 했다면, 겉보기에는 채식주의자의 눈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의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단지 나는 다른 분야에 더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추론의 결점을 보여주기 위해 채식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접한 것과는 다른 주장이 필요할 것이다.

7. 좋은 가성비

채식 운동가로서 우리의 이목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의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일부 채식주의자는 여전히 자신의 대의가 영향력 있고 정확하며 설득력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다. 식당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밥을 먹일 의무가 특정 식당에서 식사할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하지만 이 식당이 확실하게 당신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가장 신중한 방법이 될 수 있게 예시에 세부 사항을 추가해보겠다. 훌륭한 서비스와 쾌적한 식사 환경,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상상해보자. 인근 경쟁자들은 훨씬 덜 매력적인 음식을 제공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한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음식 포장을 떠올리지 못했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말 그대로 이 식

당에서 식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질 낮은 식사로 고통을 받거나, 음식값을 과도하게 내거나, 고물차로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 식당 주인이 상황에 따라 최고의 "가성비 효과"를 분명히 제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로 돌아가서, 채식주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 채식주의자들은 채식 운동가들의 기여를 고려해보면 특히 고기를 피하는 게 쉽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채식주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까다로운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기를 요구하지 않는다(적어도 본질적으로 그렇진 않다).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육식보다 저렴하다). 사실 채식주의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식당에 갈 때나 슈퍼마켓에 갈 때, 냉장고를 열 때 이미 무엇을 먹을지 결정한다. 채식주의는 우리에게 단순히 고기를 피하라고 요구한다.

어떻게 보면 이는 변화에 도움이 되는 매우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채식주의자들은 그들의 활동이 현존하는 심각한 문제 중 일부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2020년에 미국의 육류 생산자들은 소 3,510만 마리, 돼지 1억 3,940만 마리, 육계 92억 5천만 마리를 시장에 공급했다. 만약 이 중 많은 동물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다면, 고통의 총 규모는 엄청나다. 게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방금 나열된 수치는 미국에만 해당한다. 미국이 동물들이 학대받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내 육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동물(예를 들어 조기에 죽는 동물과 잡아먹지 않는 번식용 동물 포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착취, 환경파괴, 공중 보건 위협에 관한 다른 불만 사항도 기억해 보라(지구의 기후 변화는 특히나 육류 생산에 상당한 피해를 받는 심각한 문제다). 채식주의자가 되면 이 모든 중요한 문제에 맞서 싸우는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채식주의가 저비용 활동으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면, 잠재적으로 세계 질병 해결에 가장 훌륭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대안이 되는 행동주의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선택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채식주의가 제공하는 가치에 관한 주장은 예전보다 훨씬 덜 중요해진 듯하다. 사실 채식주의가 특별히 저비용이라는 점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불분명하다.

채식주의가 다른 활동에 비해 쉽다는 주장부터 시작해 보겠다. 물론 이 표현이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역겹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겐 채식주의자가 너무 많아서 고기를 피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채식주의가 채식 운동가들이 노력하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하지만 고기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우선, 채식주의를 시작하려면 일반적으로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육식주의자들은 주로 모든 식사를 중요한 윤리적 결정에 따라서 된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에게 채식주의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채식주의자는 무엇보다도 영양소 섭취를 유지하는 법, 스스로 요리하는 법, 식단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법, 식당 찾는 법 등 모두 다 다시 배워야 한다.

육식주의자들의 수가 많다는 점도 하나의 어려움에 해당한다. 육식주의자들이 채식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받아들여야 할 때 항상 좋아하지는 않고, 채식주의자는 종종 친구, 친척, 동료들에게 반발을 산다. 특히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고, 고기가 그 중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채식주의자들이 특정 식사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육식주의자들이 진심으로 육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은 자신에게 의미가 깊은 특정한 육식을 하는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예: 추수 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것). 그러나 육식이 중심이 아니어도 육식이 즐거운 일은 많이 있으며, 채식주의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따라서 채식주의는 좋은 대의에 참여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 실제로 이러한 부담은 앞서 언급했듯이 채식주의를 시도한 대다수가 결국 고기를 다시 먹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

에게는 채식주의의 주장이 실제로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육식주의자들에게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가치 있는 대의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한 희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 채식주의가 특히 효과적이라면 이러한 부담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상황은 처음만큼 명확하지 않다.

우선, 채식주의자들이 엄청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문제 자체의 규모는 채식주의 운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채식주의가 이러한 문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합류한 참여자들과 함께 그 영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이다. 이 기준에서는 채식주의가 독특하고 효과적이라고 규정하는 사례는 모호해 보인다. 자신의 대의명분을 알리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채식주의자가 다루는 문제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생산된 육류의 양은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산업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과 무력함을 견디고 있다. 환경파괴는 여전히 심각한 세계적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2021년에 이 책을 쓰는 동안 육류와 관련된 지속적인 공중 보건 위험은 동물성의 유행성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채식주의자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줄이는 데 확실히 도움은 되었지만, 남아 있는 엄청난 규모의 문제는 채식주의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채식주의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해야 하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피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만, 그들의 주요특징적인 도구는 소비자 불매운동이다. 일반적으로 보이콧은 끝낼 거라 약속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채식 운동가와 그 참여자들은 특정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제품 소비를 거부하고 생산자가 행동을 바꾸게 해서 소비가 회복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육류산업 제품의 소비를 재개하라는 말이 없는 것은 채식주의의 특징이다. 단순히 사업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육류 생산업체가 채식주의자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 따라서 채식주의의 불매운동은

생산자가 더 나은 관행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주로 광범위하고 충성도가 높으며 성장하는 글로벌 고객 기반을 갖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서 일정 금액의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채식주의자들의 중요하고 귀중한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채식주의가 유일무이한 행동주의로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채식주의자들이 한정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미심쩍게 활동 핵심 전략을 내세우는 것을 고려해보면, 사람들이 "가성비 효과"를 약화시키지 않고 다른 활동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이 결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육류 불매운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할 수도 있다. 많은 채식주의자들은 육류산업이 행하는 심각한 학대를 종식 시킬 수 있도록 정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언젠가 육류 생산이 쓸모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실험실에서 재배한 조직이나 식물성 대체육 생산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채식주의 활동을 강조해서 내 요점도 실제로 강화된다.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고도 육류산업 개혁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정치계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이념적 외부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육식이 실제로 정치적 이념을 홍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으면서 대체육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약 98%가 이 범주에 속한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도 비슷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 되는 선택 중 하나가 아니라 채식주의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한다.

8. 잘못된 논증 전략

이 장은 육류산업의 해로운 운영방식이 왜 잘못된 소비로 이어지는지 대한 직관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시작으로 전개되었다. 육류 생산은 다양한 문제와 관련

이 있다. 육류산업의 생존은 사람들이 제품 구매 덕분에 이뤄지기 때문에 육식주의자들은 업계가 계속 잘못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처음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고기 섭취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는 절대 쉽지 않다. 개인으로서의 소비는 일반적으로 육류산업의 운영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유해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육식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사실적 근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그럴듯한 주장은 채식주의의 운동으로 확대되어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고기를 피하는 효과를 살펴본다. 어떤 채식주의자도 이 운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채식주의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집단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익의 효과는 개인이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나타나서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의 문제점은 개인들이 기여해서 가치 있는 영향을 만들어 낸다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활동 일부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도 모든 활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채식주의가 스스로가 진중한 방법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독특한 저비용/고효과 선택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점은 사람이 고기를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육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치 있는 대의에 참여하는 윤리적 의무를 적절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독자들에게는 이 점을 인정한다면 논의가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다음 두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장에서 제시된 반박하기 위한 주장 중에서는 어떠한 요구 사항도 없는 채식주의에 관한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채식주의 주장 중의 하나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연관시키는 것뿐이었다. 육류산업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육류를 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이라면 채식주의자들은 반박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 장의 주장에는 더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사항도 있다. 지난 몇 페이지에 걸쳐 나는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지지해야 할지,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의 육식주의자들이 다른 활동에 노력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심지어 생활 개선을 위해 자신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

당신이 육식주의자로서 충분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채식주의자가 당신에게 함께 하자고 할 때 그만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고기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기여했다고 느껴서가 아니다. 이 장에서 내 주장이 옳다고 본다면, 이 특별한 기회를 당신이 대신할 수 있는 활동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다른 활동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고, 육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분개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지 않으며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수많은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 장에서는 특정 문제와 행동에 집중하기를 지지한다. 채식주의자들은 문제에 대응하는데 생기는 무관심이나 게으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는다.

5장 모두가 육식을 했다면 어땠을까?

채식주의자들에게 육류산업의 운영은 육식을 반대하는 주요 원인이다. 육류 생산의 주요 문제들은 동물 학대, 근로자 착취 및 공중 보건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관련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엔 고기 구매와 소비에서 비롯된다. 육식주의자들의 식단이 심각한 윤리적 잘못과 연관되어서 흔히 채식주의자들이 말하는 윤리적 행동 방침으로는 고기를 아예 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전 장에서는 인간의 육식 행위가 육류산업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악화시키지만, 육식을 안 하면 조금 덜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시사했다. 그 주장은 사실적 오류에 기반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집단이 선택한 식단은 업계 운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채식주의자가 집단적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어느 정도 효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식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해 보였다.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활동에 참여하거나 모든 대의를 지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들의 집단적 영향을 중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식주의가 선택 사항(아마도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인 이유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우리가 다른 조직 활동에 집중하려고 합법적으로 채식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이게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인과적 영향에 호소하면서 채식주의를 지지하려는 노력은 가망이 없는 전략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것이 윤리적 채식주의의 종말을 알

리는 건 아니다. 다음 두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과적 힘과 상관없이 육류를 삼가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다. 여기서 육식은 직접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도 다른 이유로 잘못된 행동이고, 우리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과는 상관없이 좋은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주장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겠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게 되는 집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 즉 옹호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초래한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지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주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여기서의 육식을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반화된 결과에 따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본다.

이 장의 제목은 이 두 번째 집단의 주장이 무엇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는 하나의 직관적인 방법을 담아낸다.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채식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고 묻는 대신, “사람들이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장은 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때든 특정 선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서 행동의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나는 육식주의자나 채식주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과 상관없이 육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육식주의자를 단순히 육식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전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로 본다면, 그들의 행동을 일반화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낳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만이 채식주의를 따르더라도 사람들이 바람직한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여긴다면 육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이전 장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반대 의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육식을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아직 이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채식주의를 지지하려고 쓰는 직관적인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윤리적인 채식주의자가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1. 보편화 시험

도덕철학에서 영향력 있는 전통은 윤리적 원리의 중요한 시험이고 이 시험이 보편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험에서는 모든 사람(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을 따른다면 어떻게 상상하고 그러한 세상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지 묻는다. 대답이 '예'라면 원칙은 시험을 통과한 것이지만, 대답이 '아니오'로 판명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종종 우리가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길 바란다.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보라. 모두가 원할 때마다 훔치는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둑이 원하는 건 절도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도둑질을 보편화 시험을 적용해서 이 행동이 명확히 부도덕하다는 결과를 얻는다.

보편화 시험이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행동을 보편화하려는 시도가 일종의 불일치를 낳는다.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기는 것을 생각해 보자.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파기하는 원칙을 모든 사람이 한다면 '약속'이라는 행동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무언가를 약속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 순간에 자신한테 맞는 약속만 지킬 것이라고 본다면 "약속"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기껏해야 "나는 무언가를 약속한다"라거나 "나는 무언가를 기대한다." 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와 같은 의미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해도 해로운 원칙을 보편적으로 채택한다면 끔찍한 상황이 올 것이다. 도둑질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모두가 안다면 삶의 질은 훨씬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에는 일관성이 있다. 도둑들은 자신이 훔친 물건이 어떤 것이든 쉽게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세계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다. 단지 도둑질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세상에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

지 않을 것이다.

2. 육식주의자들로 가득한 세상

직관적으로 봤을 때 보편화 시험은 현대 생산 방식대로 생산된 고기를 먹는 게 잘못되었다고 확인할 방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말했듯이, 육류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광범위한 소비는 동물 학대, 근로자 착취, 환경파괴, 공중 보건에 막대한 위험을 일으킨다. 이러한 끔찍한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육식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대신 모두가 채식하는 원칙을 채택한다면 육류산업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보편화 시험을 윤리적 원칙에 적용할 수 있는 옳은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면, 채식주의에 관한 주장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보편화 시험을 윤리적 추론을 위한 일반적인 도구로서 생각하든 간에, 이러한 추론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해도 먼저 채식주의를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나 시험할 행동들을 명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단순히 "모든 사람이 육식한다면?"이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허용되는 행동들이 안되는 것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간호사라는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도 병원 간호사는 전혀 문제 될 것도 없고 심지어 존경할 만한 직업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 누가 식량을 생산할 것인가? 공장, 발전소, 학교의 직원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이 간호사들을 위해 병원을 짓고 수술복, 장비, 의약품을 생산할 것인가? 간호사로 가득 찬 세상은 혼란과 죽음으로 변질할 뿐만 아니라 병원, 간호학교, 간호 실무를 위한 다른 수많은 자원이 없는 곳에서 누군가를 "병원 간호사"로 부르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분명히 이 예시의 결론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보편화 시험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사실 병원 간호사가 되는 것에만 너무 시야를 좁게 보는 바람에, 더 넓은 노동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행동을 간과했다.

간호사가 되어도 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간호는 복잡한 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넓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질문을 재구성해보면 문제는 사라진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어떨까?"라는 질문은 사람들이 문제없이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 준다.

이 같은 요점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보편화하려는 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예를 보면, 간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농부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누군가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찌지? 그건 재앙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나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정한 일에만 집중하고 대신 그들이 선택하고자 한 다른 가치 있는 일들을 무시한다면, 사람들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쉽게 착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뒤에서 다양한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야 개인이 하는 독특한 기여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한 주장을 보고 보편화 시험을 이용해서 육식을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주장의 핵심은, 세상에는 개인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나는 채식주의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겼을 때 많은 전략 중 하나에 불과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장으로 돌아가면 채식이 간호와 유사해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더 넓은 사회적 노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이 분석에서는 육식주의자에게 보편화 시험을 적용하는 건 농사를 '비농업인'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한다. 비농업인이 비농업인에 불과하다면 사회적 분업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비농업인이 간호사라면 그러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육식주의자가 단지 육식만 한다면, 즉 세상의 문제에 직면해서도 계속 육식을 한다면, 내가 이전장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확실히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식주의자들이 다른

행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면 확실히 비판은 필요 없다. 앞서 말한 주장의 원리를 보편화한다면 이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건 명확하다. 개인이 일부 요인들을 열정적으로 맡아서 담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남겨진 다른 대의들을 맡게 되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불가능한 일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

3. 채식주의자들로 가득 찬 세상

육식주의자들의 나쁜 점을 알아보려고 보편화 시험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육식주의자가 육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의에 집중하기로 해서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경우엔, 그들의 행동을 보편화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양한 대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분명히 불쾌하진 않다. 실제로 그러한 세상의 전망은 감동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전망은 보편화 시험이 채식주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육식주의자가 하는 일 말고 채식주의자의 행동을 고려한다고 가정해보겠다. 모든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누구도 요즘처럼 생산된 고기를 사거나 먹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누구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한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앞서 한 일종의 부패행위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기를 바라는 규칙에 스스로 예외를 둔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무도 (또는 사실상 아무도) 없는 세상에 산다면, 우리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세계에서는 비윤리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던 소중한 협력 관계를 약화할 것이고 구매 행동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과 육류산업의 문제점에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어

떠한 관련이 있는가?

고기가 없는 이상적인 세상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만든다. 이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비이상적인 현실에서의 행동 방식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이상적인 결과 vs 전략적 결정

나는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이상적인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행동과 실제로 해야 할 행동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모든 사람이 도로의 왼쪽으로 운전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배웠다고 가정해보겠다. 이 경우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왼쪽으로 운전하고 오른쪽 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도 미국과 같이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이 이상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는 확실히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이 이상적으로는 왼쪽으로 운전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운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운전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예시와 유사하지만 다른 예시들에 대해 더 정확히 생각해볼 방법으로, 게임 이론으로 알려진 전략적 상호 작용 과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도움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게임 이론은 사고를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데, 이는 결과가 한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 결정자들이 하는 전반적인 행동들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계 안에서 “게임”이란, 각 개인에 관한 결과(“이익”이라고 함)를 창출하려고 하는 대안 행동 과정들(“동작”이라고 함)에서,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개인들(“플레이어”라고 함)의 상호 작용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체계의 운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운전할 도로를 선택하는 예시를 다시 살펴보겠다. 당신과 내가 한밤중에 시골길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앞서 말한 대로,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둘 다 모든 사람이 오른

쪽 대신 왼쪽으로 운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가정해보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전법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다. 당신이 오른쪽을 고집하는 동안 내가 왼쪽 주행을 고집한다면(또는 그 반대 상황) 결과적으로는 정면충돌할 것이다.

그림 5.1과 같은 도표로 이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 이 도표의 각 사분면은 가능성 있는 운전 선택의 조합에 해당한다. 왼쪽 위 사분면은 우리 둘 다 왼쪽으로 운전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상자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표시는 나의 관점에서 본 결과의 "이익"을 나타내는데, 모든 결과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결과이다.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표시는 당신을 위한 '이익률'을 나타내는데, 당신의 눈에도 우리 둘에게는 왼쪽 주행이 최선의 결과다. 한편, 오른쪽 아래 사분면은 우리 둘 다 오른쪽으로 운전하기로 한 결과다. 이 표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둘 다 이를 가능한 차선 주행의 결과로 본다. 이상적인 해결책만큼은 좋지 않지만, 행동을 바꿔서 충돌을 피하는 한 여전히 좋은 방법이다. 왼쪽 아래 사분면과 오른쪽 위 사분면은 각자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해서 나온 결과를 나타낸다. 오른쪽 위 사분면에서 나는 왼쪽 주행을, 당신은 오른쪽 주행을 해서 충돌을 일으켰다. 왼쪽 아래 사분면에서는 왼쪽에 당신이 있고 난 오른쪽에 있어서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표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당신	
		왼쪽 주행	오른쪽 주행
나	왼쪽 주행	첫 번째 선택 첫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오른쪽 주행	세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도표 5.1 순수 조정 게임.

게임 이론이 운용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는 것 외에도, 이 예시는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 방침이 때로는 이상적인 행동 방침과 다를 수 있다

고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우리 둘 다 왼쪽 주행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당신이 오른쪽으로 운전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계속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게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른쪽으로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왼쪽 주행이 이상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왼쪽 주행을 하는 사례를 만드는 건 충분하지 않다. 각자가 상대방이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려면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밤중에 도로에서 운전할 때 멈춰서, 다가오는 운전자와 각자 주행 위치에 관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수도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운전해 온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사람들의 운전 습관을 바꾸게 만드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이 왼쪽 주행이 더 낫다고 믿게 되었다고 해도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예: 새로운 법의 통과) 여전히 그들이 계속 오른쪽 주행을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켜온 규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오른쪽으로 계속 운전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행동을 바꿔서 갑자기 왼쪽으로 운전할 이유가 없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상적인 행동에 대한 약속을 표현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구조는 게임 이론가들 사이에서 "순수 조정 게임(Pure Coordination Gam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관심은 행동과 더불어 서로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조정" 게임이다. 다른 옵션보다 우리의 옵션 하나를 조정하려고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순수한" 조정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 한 쪽을 선택하는 건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 옵션과 수익 외에 동일하고 일반적인 배열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건 가능하다. 게임 이론가들은 다른 전략적 상황도 연구해서 "치킨 게임", "독재자 게임", "최수의 딜레마"와 같은 다채로운 이름을 붙였다.

5. 사슴 사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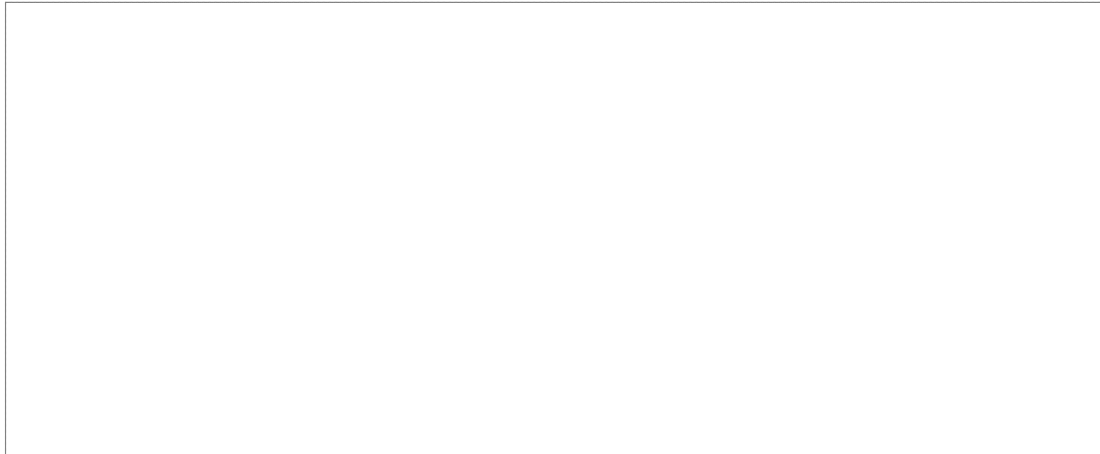
육식의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면, 게임 이론가들에 의해 알려진 "사슴 사냥"은 특히나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두 명의 사냥꾼이 가족에게 먹일 고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사냥이 윤리적인지는 무시하고 각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상 어김없이 적용되는 사냥꾼의 일반적인 사냥 절차는 토끼가 나타날 때까지 나무 뒤에 조용히 숨는 것이고, 나타나면 활과 화살로 토끼를 잡고 집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이날 사냥꾼들은 저 멀리서 토끼보다 훨씬 더 좋은 식량이 될 수 있는 큰 수사슴을 발견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사냥꾼들은 수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하며,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반대 방향에서 수사슴을 쫓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사냥꾼들은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숨어 있다.

그들은 숲속 동물들에게 들키지 않고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사슴을 쫓는 데 동참하고 있는지, 사냥을 위해 계속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슴을 쫓는 것은 위험 요소를 수반하는데, 한 사냥꾼이 사슴을 쫓으면서 다른 사냥꾼은 토끼를 붙잡고 있다면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와 반대로 토끼 사냥은 기본적으로 위험 요소가 없다. 각 사냥꾼은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식량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표 5.2 을 통해 사냥꾼의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 순수 조정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사냥꾼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왼쪽 위 사분면으로, 두 사람 모두 수사슴을 사냥하고 훌륭한 식량을 집에 가져가기로 한다. 두 번째로 좋은 결과는 다시 한번 오른쪽 아래에 있으며, 두 사냥꾼 모두 안전하게 토끼를 사냥한다. 하지만 순수 조정 게임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토끼 사냥을 선택한 사냥꾼은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사슴을 쫓는 사람에게는 협동이 필수적이지만, 토끼를 선택한 사냥꾼은 협동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슴 사냥에 대해 나는 각 사냥꾼의 결정에 딜레마를 부여한다. "사슴을 잡을

기회를 얻기 위해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할까? 대신 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토끼보다 수사슴을 잡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하지만 이야기에 배경에 대한 기대치가 추가되면 상황이 다시 한번 달라진다. 사냥꾼들이 숲에서 수사슴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냥꾼 중 한 명은 안전하게 토끼를 사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다른 사냥꾼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들은 다른 사냥꾼이 수사슴을 잡을 기회를 얻길 원하더라도, 이 가설적 이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사냥꾼에게 다른 사냥꾼이 수사슴을 같이 잡아줬으면 하는 이유를 모두 고려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가만히 서서 토끼를 사냥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토끼 사냥에 대한 다른 사냥꾼이 수사슴을 잡는 이유의 타당성을 높인다. 순수 조정 게임과 마찬가지로 사슴 사냥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대하는 바람에 차선책인 상황에 어떻게 간헐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예시와는 다르게, 사슴 사냥을 하고자 하는 사냥꾼은 토끼 사냥을 선택하지 않는다.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협력 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기대하는 것 다른 길에서 주행하는 것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사슴 사냥은 사슴 사냥꾼에게만 해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성향은 다른 사람들이 토끼 사냥하는 동안 사슴을 쫓지 않는 강력한 이유이다. 모두가 함께 사슴을 사냥한다면 더 좋을지라도 꾸준히 토끼를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냥꾼이 사슴 사냥을 선택의 이유로 여기는 건 어

리석은 일이다.

다시 한번, 추가된 사냥꾼을 상황에 넣기 시작하면 이러한 관계는 더욱 뚜렷해진다. 수사슴을 잡는 게 여러 사냥꾼의 협력에 달려있고 각 사냥꾼이 다른 사냥꾼들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면, 멀리 있는 수사슴을 발견한 사냥꾼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수렵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사슴 사냥에 실패한 역사가 있고, 많은 사냥꾼들이 솔직하게 토끼를 먹는 걸 받아들였다면, 사슴을 잡기 위해 모두가 모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누구든지 사슴 사냥을 하게 할 동기 부여가 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가상의 사냥 시나리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단결해서 자신의 몫을 다한다면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아 원하는 목표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건 행동에 동기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사람들이 게으르고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이웃이 "토끼 사냥"을 계속할 거로 생각할 때 "사슴 사냥"을 현명하게 거부할 수 있다.

사슴 사냥의 역학 관계는 육식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과 분명히 관련 있어 보인다. 육류산업 병폐의 심각성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기존 방식으로 생산된 육류를 먹지 않게 되어서 문제가 사라진 세상에 사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이상적인 세상을 실현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대다수 이웃이 고기를 먹을 것이라 알고 있을 때 우리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소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을 건지이다. 모든 사람이 먹지 않는 이상적인 상황을 단순히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해당 시나리오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우리는 수사슴을 발견했지만, 이웃이 토끼를 사냥하기로 했다는 것을 아는 사냥꾼과 같다. 최선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려면 이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아니며 육류산업의 문제가 채식주의 규범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 기여도 높이기

채식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상황은 사슴 사냥 이야기와 명확하게 구조적 유사성이 있지만 주목할만한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은 사냥꾼의 이야기가 오로지 이기심을 추구하는 개인의 관점에서만 구성됐지만, 육류 문제는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토끼 사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슴 사냥'을 하기 위한 협력에 실패해서 윤리적 비극이 초래된다면 이와 비슷하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수 있다.

육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면 사슴 사냥에 대한 부푼 상상(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을 멈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실패를 해서 윤리적 심각성이 초래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스모그 오염 문제를 고려해보겠다. 1960년대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스모그, 즉 심장과 폐 문제를 악화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이며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두꺼운 안개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이 스모그의 대부분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했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햇빛과 반응하여 며칠 동안 공중에 남을 수 있는 오염 물질을 형성했다. 스모그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지역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수준까지 올라갔다.

결국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됐다. 촉매 변환기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 배출되기 전에 이를 중화시켰다. 하지만 변환기에는 단점이 있었다. 제작 및 설치 비용이 많이 들었고 자동차 성능을 심각하게 저하했고 당시 사용 가능한 휘발유의 표준 배합과 잘 맞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규제 당국은 결국 촉매 변환기 판매 촉진을 위한 행동 했는데, 자동차 제조업체에 1975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에 촉매 변환기 설치를 요구하고 가스 회사에 더 호환 가능한 연료 체제를 제공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개혁은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스모그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역사가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정부가 규제 개입을 통해

촉매 변환기를 홍보하지 않고 대신 남은 시민이 이를 독립적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 각자는 “촉매 변환기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장치 없이 계속 운전할 것인가?”라는 선택에 직면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이 사슴 사냥 시나리오의 사람들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대안을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논의를 위해 각 시민이 스모그가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이웃들도 일반적으로 촉매 변환기를 설치하고 사용한다면 장치에 드는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촉매 변환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왜 특정 시민이 일방적으로 촉매 변환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촉매 변환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다양한 비용, 불편함, 어려움이 따르며, 자동차 한 대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지역 스모그 문제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특히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스모그 없는 사회라는 이상적인 가상세계는 비협조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한 대답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 예시는 윤리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걸려 있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무엇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보면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항상 간단하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상황이 사슴 사냥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남도 그렇게 할 것이라 보면 협조적으로 함께 행동할 거라면서 남을 따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때는 그러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조건적 협력” 중 하나로 부를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협력하리라 생각하는 조건에서만 기꺼이 협력한다.

스모그 오염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선뜻 협력한다더라도, 이는 다른 사람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식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육류산업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회적 제도에 기꺼이 협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사람이 계속해서 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육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제시할 주장이 없다면, 조건적 협력의 태도는 여기서도 정당

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흐름의 전환

나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조건부 협력자'의 태도를 보여도 된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것 같으면 문제 해결 노력에 다같이 하길 권하지만, 광범위한 협력이 어려울 때는 일방적인 행동을 이 태도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확실히 반대 의견이 있다. 사람들이 조건부 협력자로서 문제를 본다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먼저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협동 계획이 일단 실행되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계획을 만들지는 않는다.

단순화된 사슴 사냥이라는 틀이 협력을 보이게 하거나 전혀 없게 만들지만 현실 세계는 때로는 더 복잡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난점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운동가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중요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협력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발전시키고 노력을 더 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영향력은 커지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결국, 사회 대부분이 이 같은 선구적인 노력이라고 보는 "시류에 참여"할 때 광범위한 협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조건부 협력자가 되면 안 되고 대신 현장에서 협력을 끌어내는 선봉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진실의 핵심이 있다. 협력을 폭넓게 발휘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그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중 한 사람이 되는 건 분명히 감탄할 만한 점이다. 채식주의자들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규범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진실의 핵심을 토대로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실수인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운동가의 노력이다. 심지어

선구적인 노력이라 할지라도 항상 새로운 모습의 협력을 구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행동 규범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 스모그 오염 사례를 보면, 해결책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촉매 변환기를 설치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정부는 촉매 변환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시작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취급했다. 이전장에서 보았듯이 육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서도 비슷한 다양성을 찾을 수 있다. 운동가들은 채식 규범을 함양하는 것 외에도 규제 개혁, 기술 혁신 또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널리 퍼진 윤리적 채식주의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가장 유망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협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수히 많다는 점이다. 협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구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이 부재한 모든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 이는 선구적인 노력이 연쇄적 "편승" 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의심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 특히 확실하다.

수백만 명의 "선구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 협력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다고 가정해보겠다. 하지만 그들은 여태껏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고, 동참하려고 노력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되돌아갔다(이것은 채식주의의 상황임). 이럴 때 자신이 행동한다고 해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적 폭포 현상을 만들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사항은 사람들이 채식주의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처럼 보이게 하지만 특별한 의무가 있는 일은 아닌 듯이 보이게 한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 일도 안 하려고 "조건적 협력자"의 역할을 이용하는 사람은 비판받을 만하다. 하지만 운동가의 노력, 심지어 선구적인 노력이라 할지라도 항상 일방적으로 협력할 이유는 없으며 윤리적 활동에 선구적 대응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조건부 협력자로 가득 찬 세상은 결국 미해결 문제들로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에는 동의한다. 세상에는 확실히 개척자가 필요하지만 모든 운동가, 심지어 모든 개척자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

8. 선제권 가지기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누구도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한편, 비이상적인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윤리적으로 생산된 고기를 먹기 때문에 육류산업의 문제는 지속된다. 직관적으로 보면 이러한 진술과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누구도 기존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소비가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면 단지 육식이 잘못이고 채식주의가 윤리적인 의무라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전략인 '보편화' 시험은 육식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밝혀졌다.

사람들이 다른 대의에 집중하려고 채식주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채식주의자를 그냥 채식주의자로 생각한다면, 보편화 시험은 실제로 비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채식주의자와 그들의 선택에 대해 좀 더 전체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행동 뒤에 있는 원칙을 보편화하는 건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윤리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대신 채식주의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채식주의자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일종의 협동성을 채식주의 운동에서 볼 수 있다. 모두가 이런 협동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육류산업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육식주의자들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육류산업의 문제가 자발적인 협력으로 빨리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성찰은 고기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육식주의자들에게 현재 상황의 구조는 게임 이론가들이 말하는 사슴 사냥과 유사하다. 사슴 사냥에서 다른 사람들이 확실히 뒤따르지 않는 걸 보고 행동하지 않는 "조건부 협력자"의 태도는 용인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할 때까지 항상 문제 해결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반대로 새로운

협력은 가치가 있고 필요한 행동주의의 모습이다.

하지만 책임 있는 행동주의가 항상 일방적인 협력을 보일 필요는 없고 협력하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대의를 위해 협력할 의무는 없다.

우리는 윤리적 채식주의에 대한 직관적인 주장은 철저한 검토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봤다. 다시 말하지만, 채식주의는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을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해야 할 특별한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아직 살펴보지 않은 주장이 남아 있기에 우리의 연구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채식주의 논쟁의 마지막 계열로 넘어가서 마침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장 육식의 정체성

지금까지 우리는 윤리적 채식주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을 논의했다. 채식주의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을 호소해서는 고기를 피해야 할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봤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논하진 않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상에 두는 우리의 입장과 관련해서 채식주의 논쟁의 마지막 계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조나단 사프란 포어(Jonathan Safran Foer)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포크를 들어 올릴 때 모자를 어딘가에 걸어 놓는다. 우리는 동물, 농장 노동자, 국가 경제 및 세계 시장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포어와 채식주의자들은 육류산업의 문제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 때문에 육식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육류 생산업체의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계속 육류 생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답을 암시한다. 그 이유는 질문이 만들어 낸 차이점이나 어우러질 이상적인 규칙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에 대해 우리가 취할 입장이 별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줄리아 드라이버(Julia Driver)는 “사람은 선과 악에 맞서 싸워야 하며, 해로운 집단적 관행을 받아들이는 행동은 이러한 이상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주장을 검토하려고 한다.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서 마침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1. 태도 보이는 것

체셔 칼훈(Cheshire Calhoun)은 윤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는 우리가 옹호하는 점이기도 하다. 정직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신념을 남모르게 고수하지 않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옹호한다. "무언가를 옹호한다"라는 개념은 논의의 시작부터 중요하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합법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잘했다 해서 어깨를 으쓱할 수 있을 만큼 항상 잘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 훌륭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깊은 신념을 공격받거나, 단순히 굴복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그저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면 성실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현재 우리가 하는 대화에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는 논의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육류산업이 심각한 잘못에 책임이 있다고 믿거나 (3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누군가가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을 묻는다면(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건 육류산업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좋은 구실이 된다. 우리가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하지만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은 채식주의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구두로 신념을 옹호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비슷하게 신념을 배반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이다.

정직성은 당연히 가치가 있지만,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필수 요건에 자격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 확실히 이상적으로 "무언가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방식으로 신념을 표현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지지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으며 가능성을 고갈시키지 않고 모든 순간을 잘 지낼 수 있다. 우리의 신념을 표현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

지만,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 지는 책임에도 분명 한계는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를 지지하지 못해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 차원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와 맥락에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분명히 해롭다고 여겨서 앞에서 말한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자신의 신념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특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디기 힘든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쾌감은 이념적 노선을 뛰어넘어서 대화와 협력을 약화할 수 있다. 특정 형태의 표현 때문에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입을 닫거나 개방적인 성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문제에 대해 단순히 태도를 보이는 대신 진정한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종종 의도를 숨기는 게 현명하다고 여긴다.

“무언가를 옹호한다”라는 것이 열망하는 가치 이상을 의미한다면 “항상 모든 중요한 것들을 옹호한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간주할 수는 없다. 정직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는 그저 재량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논의한 다른 생각들과 마찬가지로 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정확히 공식화된 것을 교묘히 벗어난다. 하지만 상황을 구체화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정 신념을 표현하는 많은 행동에 관여하지 않을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이 옳다면, 육식이 자신의 신념을 적절히 옹호하는 것과 같이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다시 한번 불분명해진다. 우리의 먹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채식주의의 장점은 삶에서 이렇게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화, 추구하는 직업, 입는 옷, 운동가로서의 행동을 포함해서 여러 주제에 대한 신념을 전달할 방법들도 셀 수 없이 많다.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내릴 의무가 없지만, 우리가 이를 인정한다면 채식주의는 특정 의무보다 자신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 몇 장에 걸쳐 전개된 책임감 있는 행동주의에 대한 더 넓

은 그림을 생각해보면 특히나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모든 운동가는 경쟁적인 대의와 프로젝트에 자신의 시간, 에너지 및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에 현명하게 대응한다는 건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몇 가지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심각한 문제에는 거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무심결에 관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보면, 선택적 비활동이 이기심, 무관심, 게으름으로 쉽게 오해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잘못되었다. 기껏해야 사람 대부분이 행동하는 경향(즉, 이기적, 무관심, 게으름)을 성급하게 일반화한 것이며 최악의 경우 책임 있는 행동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한다.

내가 설명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오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행동주의에 더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오해는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우리가 단순히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짜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건설적인 행동과 더불어 삶 전체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념을 뒷받침해 온 방식을 볼 수 있다면, 관심이 없다 해서 누군가 우리가 하는 일(또는 하지 않는 일)을 오해할 때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2. 지지받는 소비

나는 채식주의를 우리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규정해서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 이를 육류산업을 받아들일 사례로 생각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 못 할 방식으로 식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전달할 기회가 아주 많이 있는 한, 구체적인 기회를 무시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식을 정의하는 것이 육식을 반대할 이유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항의할 수도 있다. 육식 반대론자들은 육류산업의 제품을 먹어서 육식주의자들이 표현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들은 또한 다른

것, 즉 육류산업과 그 관행을 지지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빈곤 구제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같은 목표를 지지하는 범퍼 스티커를 차에 붙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계속 가난하고 무지하게 만들어라!”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육류산업이 중대한 잘못이라고 여긴다면, 그 행위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업계를 육식 반대론자가 주요 기업들을 무조건 칭찬 하거나 JBS, Tyson 또는 Cargill 로고가 자랑스럽게 박혀 있는 티셔츠를 입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겉으로 하는 칭찬으로 조롱을 표현하려는 아이러니한 행위에 대해 풀어야 할 퍼즐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일반적인 요점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육식을 이러한 맥락에서 지지의 표현으로 보는 게 적절한가이다. 대다수 육식에 관한 사례가 어떤 것인지 보면 위와 같은 정의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표현할 생각 없이 고기를 먹는다. 맛있고 편리하며, 건강에 좋고 저렴한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순전히 자기 주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기를 먹는다. 때로는 육식이 의사 표현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전달되는 내용은 육류산업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고기로 사랑과 관대함, 논의한 문제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을 전달한다.

육식을 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들 앞에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라고 일부러 칭얼거리는 것이다. 이러한 육식은 위에서 설명한 근거로 볼 때 문제 있어 보이지만, 그러한 행동이 대부분 육식주의자의 행동 방식을 나타내진 않는다. 육식 자체가 육류산업 관행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적 오해에 기초한 듯하다

3. 결탁의 퍼즐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조나단 사프란 포어가 사람들이 육식할 때 육류산업의 문제 행동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하는 걸 봤다. 포어의 견해에서 우리는 어디에 “의지할 것” 인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책임감 있는 결정은 곧 계속 고기를 구입하고 먹는 행위를 멈춰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가 옹호하는 것을 보여주는 렌즈를 끼고 포어의 입장을 해석하게 되면 그의 주장이 약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공개적인 표현을 통해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건 채식주의를 의무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다시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신념을 표현하는 문제는 육식주의자들과 육류산업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냉혹한 사실이 있는데, 육식주의자들의 소비가 육류 업계의 유해 행위를 지속시키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점이다. 4 장에서는 특정 개인의 참여가 업계의 활동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지만 모든 육식주의자가 육류 업계가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한몫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육류가 비윤리적으로 생산된다는 걸 생각하면, 시장 참여자로서 이러한 범법 행위와 사람들이 피해야 할 특별한 의무와 관련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많은 채식주의자가 범죄에 연루될 걱정을 행동하는 동기로 꼽는다. 우리가 하는 걸타이 육류산업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범죄에 연루된다는 그 자체로 확실히 반대할만하다. 하지만 현대 세계 문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수많은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직관은 주의 깊게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공포는 전기 사용, 휘발유 연소, 생산 및 운송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생긴다. 상점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상품(채소도 포함!)은 문제가 되는 노동 관행과 환경에 해로운 방법으로 추출된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이웃과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불의를 행하는 정부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불의와 엮이는 가장 교묘한 방식 일부에 불과하다. 스펙트럼의 끝으로 멀리 이동하면 신체적 특징, 국적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불평등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불법 행위와 관련된 시장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의 돈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하는 거래가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라도 식료품점이나 식당에서 비건 제품을 팔아서 얻은 이익 중 일부가 고기와 불의와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은 양심의 가책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거래를 해서 이러한 연관성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분리된 경제를 확립시키는 것 말고는 “양심적인 소비자”는 관련된 유해성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성찰은 결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단순히 삶에서 결탁을 없애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켜준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참여도를 최소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를 떠나 숲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가능한 완전무결할 수도 있겠지만, 따라 할 만큼 실질적인 본보기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결탁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잘못된 해결 방법이라면 우리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은둔자가 되는 예시는 이 퍼즐의 핵심적인 차원을 하나를 보여준다.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둔자라는 해결책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생산적일 것이다. 숲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참여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사실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 행위 자체를 없애는 충동은 불쾌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우리가 문제 자체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개인의 순수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처하는 더 건설적인 방법에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문제를 해결에 때로는 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관여할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앨 고어(Al Gore)가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영향력 있는 노력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전 세계 청중과 대화하기 위해 여행을 하면서 막대한 탄소 발자국을 축적했다. 그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측정하면 당신이나 나보다 고어가 기후 변화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기후 변화 퇴치를 위한 기여도 엄청나다.

특히 고어가 추가로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세계 기후 변화 결과에서 감지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 만든다고 보면, 그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중에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을 심각한 오점으로 보는 게 이상해 보인다.

이 책의 주제로 돌아가서, 동물들이 도축되기 전에 고통이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하는 데 일생을 바친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템플 그랜딘(Temple Grandin)의 사례도 살펴보자. 그랜딘의 설계는 육류산업 전반에서 채택되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유명한 조연자가 되었다. 그랜딘은 대부분 사람보다 가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남아 있는 문제에 많이 관여했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랜딘의 설계는 육류산업의 문제를 전혀 없애지 못했다. 실제로 업계는 그녀의 제안을 채택해서 대중들이 회사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게 도움을 받았다. 더욱이 그랜딘은 공개적으로 계속 고기를 먹는다. 주요 육류 업계가 채식주의자의 조언을 이만큼 수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에, 그녀가 계속해서 육식하는 것은 그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탁을 강화 행동에도 그랜딘이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분명히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는 앨 고어나 템플 그랜딘이 아니지만, 이러한 예는 바로 결탁이 실질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준다. 우리가 만들어 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개인의 순수함이 아니라), 결탁 행위 자체를 줄이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뒀야 할지는 알 수 없다. 해결 방법 중 문제를 일으키는 데 가담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더 관여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단순히 어떤 조치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무결함"을 만드는 데 그렇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연루된 많은 문제는 결탁 행위의 당혹스러운 두 번째 측면을 보여준다. 4장에서 나는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대의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만들어 낸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해도 여전히 조치를 위한 다양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부분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면,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문제(즉, 우리가 만들지 않은 문제)에 대해 행동하고 우리의 계획과 열망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길 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어렵겠지만 결정이 더욱 시급하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앞에서 한 논의는 결탁 행위가 왜 해결하기 어려운지 이유를 몇 가지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 책 전체에서 논의된 다른 생각들과 마찬가지로, 대응책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런데도 결탁 행위가 지난 세 장에 걸쳐 설명했던 책임감 있는 행동주의의 평소 모습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폭넓은 몇 가지 요점들이 있다.

첫 번째 요점은 충분히 낮은 비용으로 범법행위에 관한 결탁을 줄이는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비용이 0일 때 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장의 예로 돌아가 보면, 스모그로 가득 찬 도시에 사는 시민이 간단히 버튼을 눌러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 자동차 한 대가 기여도가 매우 낮아서 버튼을 눌러도 스모그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가정해보겠다. 그래도 버튼을 누르면 시민의 결탁 행위가 사라진다는 게 눌러야 하는 타당한 이유인 것 같다.

반면에 스모그에 관한 사례는 이 제시된 내용의 한계도 보여준다. 스모그 문제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의 지분이 높지 않다고 인정하는 한, 시민이 이 피해에 대한 결탁을 없애려고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촉매 변환기를 설치하지 않을 때, 이 시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린 이유이다. 특히 이 시민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낼 수 있다면, 이러한 특정 결탁을 줄이는 노력을 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탁을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만, 이러한 강압적인 이유는 실제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

결탁의 중요성에 대한 두 번째 요점으로는, 다른 문제보다 특정 문제에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를 넘어선다. 즉,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돕는 행동을 할 최소한의 이유가 항상 있지만, 특정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행동해야 할 이유를 추가로 준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반대 사항이 없는 경우에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운전하는 시민이 도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의 하나를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는 스모그 퇴치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는 경찰 개혁과 같이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시민이 각 행동주의가 추구하는 다양한 장점을 반영하고 대부분의 측면에서 같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상상해보라. 두 가지 다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 역할에서 좋은 일도 거의 비슷하게 할 것이며 시민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시민의 재능과 경험 등을 잘 활용한다. 이렇게 연관성이 명백할 때, 시민이 스모그 문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균형을 깨버리는 합리적인 내용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시 한번 스모그 예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보여준다. 스모그 퇴치가 다른 측면에서 경찰 개혁보다 덜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가정해보겠다. 예를 들어 시민이 좋은 일이나 피해를 예방하려는 입장에서 노력을 덜 하거나 오염보다 치안 관리에 더 열정적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시민의 결탁으로 인한 이유가 더 쉽게 커 보일 것이다. 이 예시는 시민이 결탁을 줄이는 게 논의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인 기여를 줄이는 것 외에도 스모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결탁 행위 자체를 줄이라는 요구로 해석하지 않고도 문제에 집중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결탁의 중요성에 관한 마지막 요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서 스스로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는 자기 계발과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여유가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자신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이유가 생긴다. 비참할 정도로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손이 깨끗한 사람보다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이 '청소'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운전하는 시민의 예는 고려해야 할 내용의 중요성과 한계를 모두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사람이 계속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보다 문제 해결사로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 타당하다. 그 사람이 계속 운전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발전을 생각할 권리 따위는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탁했다는 사실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 이유로 보인다.

이러한 요점들은 문제에 양심적인 대응 방법을 정하는 과정 일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에서는 어떤 대의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야 하는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명했다. 여기서 단순히 요점들은 많은 사항을 고려하면서도 어렵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제 이러한 사항 중 일부가 결탁을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일으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낫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이 항상이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는 결탁을 줄여야 할 때 특히 그렇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윤리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결탁이 특정 행동을 할 이유 제공하더라도 항상 결탁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 잠재적인 반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결정이다. 모든 개인이 특정 문제의 결탁을 줄이는 활동을 포함해서 하나의 행동주의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육식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서, 이러한 성찰이 채식주의자가 되기 위해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약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육식이 육류 산업의 문제에 우리를 연루시키는 것은 성찰할 때 문제가 된다. 즉, 육식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채식주의에 개방적이어야 하고 고기를 피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채식주의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도 된다(물론 내가 말했듯이 채식주의가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의 결탁은 문제가 없을 때 보장되는 것보다 스스로 운동가로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는 채식주의가 운동가로서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해준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도 확실하진 않다.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먹어서 이익을 얻고 다양한 행동주의에 집중할 이유가 많으며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고도 적절한 야망

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한, 이 문단에서 제기된 어떤 주장에서도 육식을 금지할 의무는 없다. 스모그로 가득한 도시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자신의 결탁이 피해를 만든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5.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것

우리가 육식하며 내놓는 주장에서는 육류산업의 문제에 우리를 연루시키는 것은 채식주의에 관한 중요한 사례를 내놓지 않는다. 하지만 육식주의자와 육류의 관계를 비판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관계가 객관적이고 외적인 것을 보기보다 육식주의자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내면적으로 느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육류 생산은 많은 심각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육식주의자들이 고기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많은 채식주의자에게 고기는 잔인함, 불평등, 지속불가능성, 무모함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들의 눈에 육류 제품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슬픔, 좌절, 혐오감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다. 육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건 어렵지만, 육식주의자들이 식사할 때 느끼는 감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육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접시에 있는 범죄의 상징 앞에서 낙담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즐기며, 제품을 세상에 알리고 찾아내서 괴물이 아닌 마치 사랑스러운 것을 친구들과 나누는 듯이 군다. 이러한 감정이 옹호될 수 있을까?

우리는 행동 윤리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감정과 관련된 질문은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분명한 감정도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표정을 보이지 않고 수년 동안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산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그러한 개인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태도를 적당히 비판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조부모의 죽음을 보고 조용히 “드디어, 잘 가셨어!”라고 생각하며 반응한다고 보자.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품성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

육류 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대할 만한 태도가 분명하다. 육류 업계 직원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개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자. 진짜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업계 종사자들의 너무 가학적이고 사악한 행동이 생생하게 문서로 기록되는 것을 목격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겁에 질려 있고 무력한 동물들에게 노골적으로 학대하는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윤리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러한 행위를 행복하고 유쾌한 태도로 지켜볼 수 없을 것이며, 그 태도에 웃음과 박수로 화답하는 행위는 확실히 기괴할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한 근로자 학대, 환경파괴, 공중 보건 위험과 같은 다른 범법행위에도 비슷하게 판단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태도는 정당해 보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윤리적인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 예시에서 육류산업이 행하는 부당 행위에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볼 때 보이는 태도가 적절하다고 믿는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는 것처럼 닭가슴살, 돼지고기 또는 햄버거를 먹을 때 잔인함, 불평등, 지속불가능성, 무모함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와 육류 사이의 연관성은 우리가 육류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육류산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식욕이 전혀 돋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고기를 즐기고, 찾고, 심지어 알릴 만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언급된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육류와의 관계성이 부정, 자기기만 또는 단순히 "육류를 피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증은 강력하고 직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주제에서 이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영향력은 약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막을 살펴보면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불쾌한 진실들이 드러난다. 우리가 먹는 음식(채소 포함!), 구매하는 상품, 삶의 동력이 되는 전기, 우리가 사는 문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 등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와 피해, 불의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를 둘러싼 악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슬픔과 죄책감, 비참함을 느껴야 하는가? 문제를 제쳐두고 행복해도 되는가?

행동주의 윤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생각해보면 특히나 이러한 질문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마음은 부정적인 태도를 키우고 유지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운동가가 될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황은 매력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마주하고 연관되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없앨 힘이 없다. 그중 일부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위한 노력은 의무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수많은 도전을 놓고도 필연적으로 수동적인 관찰자인 상황에 놓이게 될 듯하다. 육류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뒷받침하는 동일한 논리는 우리 삶의 많은 측면을 불만족스럽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귀중한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노력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게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은 완벽하지 못하다. 태도를 고수하는 유일한 이유가 반박이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 태도의 또 다른 장점은 그 적용되는 대상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것에 감탄하고, 무서운 것을 두려워하고, 사악한 것을 비난하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타당성은 그들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목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육류산업이 문제를 일으키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부정적 반응의 적합성은 실질적인 목적과 관계없이 태도를 권할 수 있다면 적어도 고기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되는 근거로 보인다. 하지만 적합성과 실질적인 가치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적합성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태도를 유지해서 실질적인 단점을 꺼낼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태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아니면 때로는 다른 목표를 존중하는 의미로 다른 태도를 받아들이는 게 적절한지 물어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우리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이 긴장감을 설명할 수 있다. 앤디와 베스가 연인관

계이고 서로 사랑에 완전히 빠졌다고 상상해보라. 불행하게도 둘 다 형편없는 성격을 가진 무례한 사람들이고 서로의 결점을 견딜 수 있다면 훌륭한 커플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주로 대응 기제로서, 두 사람 다 계속되는 실패와 결함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반성의 순간에 자신들이 연민이 없고 끔찍하다고 보지만 자신과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일상을 살아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명랑하고 협조적이며 인내심을 가지기로 하고 나쁜 점에 연연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한다.

이 예시에서 앤디와 베스는 자신과 서로에 대해 완벽하게는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진실에 가장 가까운 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비록 나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연민은 조금이라도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적합한 태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실질적인 고려 사항들이 그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를 다 다루진 않지만, 항상 부정적인 느낌이 그들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사실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사항처럼 보인다. 특히 우리가 그들이 결점을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그들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버리고 항상 진실에 고통스럽게 살라고 충고하는 건 매우 잘못되었다.

비슷한 맥락의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찰스는 불의와 차별, 부패가 만연한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에서 살고 있다. 지금도 찰스가 사는 사회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은 취약계층에게 해로운 관행과 정책을 자행하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찰스의 도시는 문화, 전통,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찰스는 도시의 모든 문제(또는 사회 외에 다른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세 장의 논의에 따라, 그는 다양한 조직에서 노력하고 야심 찬 방법으로 여러 계획에 기여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루지 않고 남겨둔다.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 그는 도시의 활기찬 문화, 전통과 아름다움을 다시 즐기기로 마음먹고 가끔 남아 있는 많은 비극과 악을 반성한다.

다시 한번, 그들의 목적에 대해 찰스의 태도가 진실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가 대부분 시간에 느끼는 감정과 가장 적합한 태도

간에 긴장감을 발견할 것이다. 찰스가 사는 사회의 진정 가치 있는 측면은, 그의 태도가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아도 사회생활에 참여할 때 적어도 내적 갈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찰스가 자신의 도시를 여행하거나 그 문화에 참여하거나 한 블록 주변의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한번 확실해졌다. 찰스가 혼란스러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만, 그 감정은 그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크게 줄여버릴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인지와 관련 있는 듯하다. 찰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죄책감 없이 인생의 다른 면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찰스가 사는 사회에 대해 반성하면서 때론 갈등을 느낄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럴 거라 보는 건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예시로 설정된 보기를 생각하면 육식주의자들이 식사를 즐기면서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주장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육류와 많은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고기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반면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고기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일반적인 이유가 있다(요리의 장점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과 문화적 전통에 참여하는 게 그 예시이다). 따라서 고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사고방식은 적어도 상충하는 감정을 포함하고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설명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삶의 수많은 영역과 마찬가지로 고기에 대해 어긋나는 감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게 힘들 수 있고, 육식주의자들이 가치를 두는 활동을 잘 즐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육류산업의 잘못에 대응하기 위해 육식주의자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해서 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잘못을 계속 저지를 좋은 구실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책 전체에서 주장했듯이, 육식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별개의 이유는 없다. 갈등이 있다는 주장이 적절하다면, 육식주의자들의 행복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는 앞에서 요구하는 점에 맞서 중요한 균형추처럼 보일 것이다.

자신의 성격이나 거주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 각자는 절대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 살

고 있다는 사실과 씨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없애기 어려울 만큼 수 많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 나는 이 책에서 행동에 전념하는 것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또한 나는 행동주의에 합리적인 접근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문제에 집중하고 많은 다른 기회들은 그냥 떠나 보내버리라고 했다.

유사 선택성은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를 둘러싼 악에 계속 연연하지 않고 복잡한 삶을 살아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듯하다. 물론, 그러한 전망은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우리 삶의 다른 면에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달리 느꼈다면 우리를 진정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들 수 있었을까?

6. 함께하는 게 더 나은가?

우리는 마침내 수많은 채식주의 논쟁의 끝에 도달했다. 내가 배제한 요인들도 당연히 있지만, 육식이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한 논증의 핵심이 다루어졌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펴본 각각의 주장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확립하려고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엔 의무성은 부족했다. 하지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선언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다. 어떤 채식주의 주장도 육식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해온 주장을 종합해 본다면 결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채식주의자의 독특한 행동주의에서 내가 인정한 수많은 미덕을 생각해보라. 단 한 명의 채식주의자가 육류산업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전체 채식주의 운동은 확실히 많은 중요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특정 측면에서(예: 대체육 섭취 및 홍보를 통해서) 채식주의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사라진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채식주의자는 채식을 더 확실히 따랐을 때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규범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육류 생산자들의 불법 행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육류 생산의 부정적인 측면에 완전히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

이 사실들은 채식주의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측면을 나타낸다. 이 중 어느 것도 그 자체가 결정적이진 않더라도, 이를 완전히 별개로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 고기를 피하는 모든 이유를 종합해 보면 채식주의에 관한 결정적인 사례들을 모으는 게 아직은 가능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논증 방식의 문제점은 가치 있는 대의는 홍보할 강력한 이유를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속되는 잘못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고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며 위험 요소에 거리를 두고 정서적 조화를 키울 방법은 많다. 이 책 전반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심각한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문제들을 대처할 기회는 무수히 많다.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많은 문제가 선택되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는 놀랄 필요도 없다.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개인의 결정을 생각하면, 쉽게 일반화할 수 없는 많은 요인이 선택을 만들어간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다 특정 요인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특히 소홀히 여기던 계획을 발견했거나 보기도 못한 개인적인 재능이나 기술을 확인했거나 단순히 적시에 적절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될 수 있다. 일부 사회적 상황은 다른 상황보다 특정 행동주의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특정 사람들은 특정 영향력에 더 취약할 수도 있고,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로써 연관성을 보일 수도 있다. 독특하게 섞인 개인의 관심, 열정, 경험과 성격의 특징이 특정 대의를 향할 수도 있다. 특정 사람에게 특정 행동이 긍정적이고 즐거우며 유익하고 쉽다고 생각하면 제한된 지력을 과도하게 쓰지 않고도 큰 열정을 가지고 해당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특정 대의를 특정 방식으로 어디까지 지원할지 경계를 정하려면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채식주의가 항상 승리하는 후보 중 하나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등장하는 건 단순히 보기에는 거짓 같다.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지 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한 가장 좋은 행동주의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다

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운동가가 추구하는 선택은 직업의 선택과 비슷할 것이다. 육식과 채식, 두 영역 모두에서 일부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 낫다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은 없다. 이런 점에서 채식주의는 수많은 다른 활동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채식주의에 대해 논의한 사항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미 행복하게 채식을 실천하고 있고 채식 식단을 자신의 생활 방식에 적응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가 논의한 문제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특정 행동주의에 강하게 공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채식주의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매우 혐오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적어도 다른 방법들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특정 행동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7. 육식은 해도 된다.

우리는 마침내 내가 이 책에서 확립하려고 노력해 온 결론에 도달했다. 농산물 직판장이나 “농장에서 식탁까지 운동”에 참여하는 식당에서 꼼꼼하게 생산된 고기뿐만 아니라 일반고기를 먹어도 된다. 윤리적으로 의심되는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먹는 것과 생산 원인이 된 잘못된 운영방식을 비판하면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 꼭 필요할 때나 특별한 경우에만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단순히 먹고 싶어서 식료품점에서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주문할 때의 기준인 “그냥” 먹어도 된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행동에는 윤리적 단점이 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의 복잡한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활동에도 마찬가지로 윤리적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고기를 피하는 대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제시한다. 이처럼 단점이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하거나 상응하는 장점을 가진 모든 이유를 감당할 의무가 없고, 나는 그

러한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질병에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해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우리가 노력했어도 어찌면 이 책에서 논의한 문제를 포함한 수많은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쯤 되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내 주장에 동의하길 바란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이 책에서 얻을 핵심은 아니기를 바란다. 당신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진짜 핵심은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겠다는 윤리적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대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매우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 어떠한 방법으로든 참여해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채식주의는 다른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육식주의자가 다른 행동을 우선으로 두기 위해 이처럼 자유롭게 육식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그들은 게으름과 이기심, 무관심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의 하나로서 그들의 방식대로 먹는다. 많은 채식주의자 역시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비효율적인 식단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양심적이고 깨끗하다고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게으름과 이기심, 무관심의 죄를 범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육식주의자이거나 채식주의자라면, 저 사실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내 의견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 당신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자, 이제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또 무엇을 할 것인가?